

석사학위논문

부부 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허철수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강 차 선


2006년 8월

부부 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허 철 수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4월 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제출자 강 차 선

강차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6년 6월 일

심사 위원장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심 사 위 원_____인

<국문 초록>

부부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¹⁾

강 차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지도교수 허 철 수

본 연구는 부부 의사소통 방식 및 결혼만족도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제주지역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의사소통 방식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출생지역별 결혼만족도는 어떠한가?
4. 부부간 일반적 대화 경향과 결혼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 의사소통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대상은 제주지역 일반 부부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의 시, 군, 읍사무소, 농협, 교육기관, 북군청, 도청, 이도 주공 아파트 등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 적용된 의사소통 질문지와 결혼만족도는 채규만(1996)에 의해 도입된 의사소통 방식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부부대화법 53문항과 부부가 사용하는 부정적인 대화유형 10문항, 부정적인 문제해결 유형 13문항등 총 76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도구인 한국판 결혼생활 만족도(K-MSI) 검사는 Snyder(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 채규만(1998)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총 160문항이며, 자료처리 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p < .001$, $p < .01$, $p < .05$ 수준에서 상관분석, 변량분석, 회귀분석으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본 논문은 200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첫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서 기능적 의사소통은 부적 상관관계가 높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과 역기능적 문제해결은 정적 상관관계가 높다.

둘째,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남편이 공격행동에 차이가 크고, 아내는 관습적 반응에 차이가 크다.

셋째, 출생지역별 결혼만족도는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정서적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크다.

넷째, 일반적 대화 경향과 결혼만족도는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을 때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자녀양육 갈등, 자녀 불만족에 차이가 크다.

다섯째,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 불만족은 말하기, 문제해결, 다툼식 말하기, 잔소리, 위협적인 대화유형, 다툼·항복형, 걸돌기형에 영향을 준다.

정서적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유형, 타협형, 성적 불만족은 문제해결방식, 걸돌기형, 설득형, 공유시간갈등은 말하기, 문제해결, 통제식 말하기, 회피형, 타협형에 영향을 준다.

문제해결 의사소통은 말하기, 듣기, 걸돌기형, 다툼식 대화유형, 잔소리, 위협적인 대화유형, 다툼·항복형, 경제적 갈등은 말하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 공격행동은 다툼식 대화유형, 다툼·항복형에 영향을 준다.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은 듣기, 통제식 대화유형, 잔소리, 걸돌기형, 설득형, 원가족 갈등은 문제해결, 위협적인 대화유형, 자녀양육 갈등은 말하기, 문제해결, 통제식 대화유형, 다툼식 대화유형, 타협형, 자녀 불만족은 문제해결, 다툼식 대화유형에 영향을 준다.

관습적 반응척도는 말하기, 듣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유형, 타협형, 비 관습적 성역할에는 문제해결방식이 각각 영향을 준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하위 요인 중 기능적 의사소통인 말하기, 듣기, 문제해결 방식은 결혼 만족도를 높여준다. 따라서 이혼과 결혼불만족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에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자신을 돌보고, 타인을 이해·존중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교육현장(초, 중, 고, 대학, 일반)에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5
1. 의사소통에 관한 고찰	5
2. 결혼만족도에 관한 고찰	14
3.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17
III. 연구방법	20
1. 연구대상	20
2. 연구도구	20
3. 자료처리 방법	24
IV. 연구결과 및 해석	25
V. 요약, 결론 및 제언	50
1. 요약	50
2. 결론	55
3. 제언	58
참 고 문 헌	59
Abstract	66
부록	71

표 차 례

<표 II- 1>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12
<표 III- 1> 부부의사소통 유형의 하위척도	21
<표 III- 2> 결혼만족도 하위척도	23
<표 IV- 1> 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26
<표 IV- 2>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29
<표 IV- 3> 역기능적 문제해결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33
<표 IV- 4>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차이	36
<표 IV- 5> 출생지역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39
<표 IV- 6> 일반적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 차이(1)	41
<표 IV- 7> 일반적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 차이(2)	43
<표 IV- 8> 의사소통방식이 전반적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45
<표 IV- 9> 의사소통방식이 정서적인 의사소통문제,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갈등에 미치는 영향	46
<표 IV-10> 의사소통방식이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47
<표 IV-11> 의사소통방식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원 가족 문제, 자녀 양육갈등, 자녀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48
<표 IV-12> 의사소통방식이 관습적 반응, 비관습적 성역할에 미치는 영향	4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류의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중 하나가 배우자 관계이며, 개인의 삶에서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는 가족의 가치관과 문화의 변화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본다.

MBC 가족백서(2004)에서 밝혔듯이, 남녀가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여도 개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부부는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변화되면서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수직적이고, 가부장 중심의 부부 관계에서 민주적이고 평등적 가치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결혼과 가족의 형성이 가문의 일 또는 가족 공동체의 관심사였다가 개인적 선택으로 변화되면서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고 가족문화가 변하고 있다.

권정혜와 채규만(1999)에 의하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개인은 결혼 생활의 안정성보다는 부부간의 만족도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다. 부부 관계는 가족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것으로, 부부 각자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결혼생활 전반에 대해 어떻게 느끼며 생각하느냐가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결혼생활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동아일보(2006. 2. 4)에 의하면 한국 부부들의 결혼만족도는 프랑스, 미국, 일본에 비해서 낮고, 이혼율이 높아지고 흔들리는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이다. 이러한 보도를 접할수록

더욱 더 사람들의 행복한 결혼에 대한 바람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2006)에 의하면, 2005년도 하루 평균 867쌍이 혼인을 하고 352쌍(조 이혼율: 2.6)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된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49.2%)와 경제문제(14.9%)가 전체의 절반이상(64.1%)을 차지한다.

결혼생활에 있어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거나 배려한다 해도 대화기술이 부족하면 서로 오해하거나 상처를 받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하여 심각한 부부싸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부부갈등 문제는 배우자와의 의견차이와 갈등의 문제가 누적되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결혼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Minuchin(1974)에 의하면 부부는 두 사람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일련의 의미를 만들어 가고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내용에 대한 공통된 해석은 부부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켜 결혼에 대한 만족도에 기여하지만, 서로 다른 해석은 부부 서로의 오해를 야기하여 갈등을 낳게 된다(김민너, 2004).

그러므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경험과 관심을 서로 나누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적응과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만족스런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은 부부간의 풍부한 대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부부 결혼만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송시내, 1999; 조유리, 2000; 박성호, 2001; 노익상, 2002; 유영주, 2002; 배미자, 2003; 전명진, 2003; 고정애,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의 이혼율이 전국 상위권을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부부들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즉, 결혼생활 만족도와 의사소통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향후 제주지역의 부부생활의 연구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문제

위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출생지역별 결혼만족도는 어떠한가?
4. 부부간 일반적 대화 경향과 결혼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 의사소통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연구문제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부 의사소통 방식과 결혼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출생지역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부간 일반적 대화 경향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5-1. 의사소통 방식(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전반적인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2. 의사소통 방식(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정서적 의사소통문제,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3. 의사소통 방식(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4. 의사소통 방식(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배우자가 족과의 갈등, 원가족 문제, 자녀양육갈등, 자녀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5. 의사소통 방식(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은 관습적 반응, 비관습적 성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부부 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 본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서 의사소통의 개념 및 중요성, 의사소통의 유형, 결혼만족도 개념 및 영향 요인, 그리고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의사소통에 관한 고찰

1) 의사소통의 개념 및 중요성



(1) 의사소통의 개념

Communication의 사전적 의미는 라틴어의 '나누다'를 의미하는 'Communicare'로서 어떤 사실을 타인에게 전하고 알리는 심리적인 전달의 뜻으로 언어·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하는 정신적·심리적인 전달 교류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학자들에 따라 달리 정의를 하고 있으며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이란 Schramm(1948)에 의하면 인간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의 하나로 A가 B라는 내용을 C라는 채널을 통해 D에게 전달해서 E라는 효과를 얻는 과정이라고 하였고, Morris(1964)는 의사소통을 공통성의 수립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Weaver(1949)는 한마음이 다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Newcomb(1950)은 의미의 전

달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을 종합하면 의사소통이란 ‘한 개인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극을 보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신호라는 수단을 통해서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음으로서 서로 공통된 의미를 만들어 내고 나아가서는 서로의 의견이나 지식, 경험, 사고, 감정, 태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나 행동이라고 하였다(차배근, 1995 재인용).

Bienvenu(1970)는 의사소통을 감정, 생각, 느낌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여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려고 하고 또한 타인과의 관점 차이를 알기 위하여 자신의 느낌과 의미를 상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였다(송시내, 1999 재인용).

Cooley(1956)는 인간관계를 성립시키고 발달시키는 메카니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신의 모든 상징을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보존시키는 수단이라 하였고, Freimuth(1976)에 의하면 자기노출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신뢰감, 의사소통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고 하였다(박민숙, 1984 재인용).

또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송신자가 명백하고 일치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수신자는 메시지에 대해 응답 혹은 반응해야 하며, 인간관계 측면에서 의사소통은 의사를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감정을 이입시키는 수단이며,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 하므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듣고 말하는 태도가 성의 있고 예의바르며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김소영, 2003).

Gross등(1980)은 인간의 기본적인 정보화 과정의 체계와 개인 간에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이라 정의하면서 가족이 자기 이미지를 발달시키고 사회 내에서 하나의 단위로 행동함으로써 생겨나는 과정의 부분으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하였다(정윤영, 1998 재인용).

이러한 학자들마다 다른 개념들을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 사고나 감정 등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서로 언어와 비언어를 통해 상호작용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 것으로 한 개인이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킴으로써 대인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이자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2) 의사소통의 중요성

의사소통으로 인한 관계성은 대화를 통해 시작되고 유지되며 강화되거나 또는 파괴되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학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협동을 통한 사회유지기능이고, 현대와 같이 이질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역할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란 수단이 없이는 인간들 사이의 협동이 불가능하게 되며 협동이 없는 사회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Edwad(1935)도 일찍이 말하기를 ‘사회란 주로 의사소통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을 인체의 신경계통에 비유한 바 있다고 하였다(차배근, 1995).

‘건강한 부부관계는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을 한 Mace(1976)는 부부 의사소통의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Udry(1966)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 자신들의 결혼생활 만족이나 가정생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의사소통이 성공적인 결혼의 열쇠임에 틀림없다고 하였다(최영실, 2005 재인용).

성공적인 결혼이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배려하는 태도와 함께 의사소통기술을 갖는 것은 자신과 타인을 배려하면서 win-win하는 관계

를 이룰 수 있으며 부부들이 메시지를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채규만, 2002).

그리고 결혼생활에서 대화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부는 대화를 통해 배우자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민주적이고 동등한 부부관계가 유지된다(최정숙, 1996). 이러한 부부간 친밀감은 대화에 의해 공동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고 부부의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 가정의 기능이 잘 수행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소통기술을 들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발생할 때에는 언어적인 수단을 사용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은 부부 상호관계를 증진시키고 부부가 서로 더 많은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상대방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있어 그 전달방법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의 안정과 부부 자신들의 결혼생활 만족이나 가정생활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행복과 불행을 결정 지우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송시내, 1999).

이처럼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배우자를 이해하고 서로 의미를 나누는 이해의 과정으로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된다(박태영, 2005).

이렇듯 부부는 대화를 통해 배우자에게 친근감을 느끼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으므로 동등하고 민주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되고 대화를 통해 공동관심사를 논의하고 부부가 사랑과 관심으로써 서로 협조할 때 비로소 가정의 기능이 잘 수행된다.

또한 부부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들은 것을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갈등이 건강한 관계형성의 초석이 될 수 있다.

2) 의사소통 유형

부부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그들 나름의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이 생겨나고 유형화된다. 이러한 의사소통방식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인 간의 사고나 감정을 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으로서 개인 요인과 상호작용 요인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의사소통 유형은 학자들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학자들의 분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Norton(1978)은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긴장 이완형, 개방형, 표현형, 감정 이입형, 친밀형,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는 지배형, 논쟁형이 있다.

기능적인 의사소통인 긴장 이완형은 조용하면서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하며, 개방형은 자아노출이 잘 이루어지고 마음을 잘 표현하는 형, 표현형은 연극하듯 말하며 과장하기를 즐기는 형, 감정 이입형은 타인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하며 감정이입을 잘하는 형, 친밀형은 친밀하며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형이며, 반면에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는 말을 많이 하고 자주 가로막는 지배형, 논쟁을 빈번하게 하며 갈등을 이야기 하는 논쟁형을 제시하고 있다(송상홍, 2004 재인용).

Hawkins, Weinsberg와 Ray(1977)는 언어화의 정도와 정서적 감정표출의 정도에 따라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을 차단형, 억제형, 분석형, 친숙형으로 분류 하고 있다.

차단형은 문제를 숨기거나 피하며 그것에 대한 명백한 언어화를 하려하지 않으며 감정의 표출이 낮아서 정서적 투입의 상태를 거의 드러내려 하지 않고, 가벼운 농담이나 날씨 등에 관한 이야기로써 화자 자신의 개인적 문제와는 상관없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 때의 의사소통 유형이다.

억제형은 상호적으로 의미를 탐색하는 것에 대하여 폐쇄적이며 거부

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문제나 내적 사실에 대한 명확한 언어화를 금하면서 암시적으로 감정의 상태가 높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지만 객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분석형은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고 자신과 다른 관점은 존중하면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분석적이고 감정적으로는 거의 몰입을 하지 않아 낮은 감정 표출형이다.

친숙형은 자신이나 타인의 내적 사실과 경험한 바에 대하여 명백히 언어화 하고자 하며 정서적으로 강한 몰입을 나타낸다(전귀연·구순주·박경란, 1998 재인용).

Satir(1972)는 자신의 가치를 낮게 생각하는 사람은 간접적이고 모호하고 솔직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하며, 자아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직접적이고 분명하며, 확실한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녀는 의사소통 유형으로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그리고 수평형으로 분류하였는데 수평형을 제외한 나머지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개인이 위협을 느끼지만 자신의 약점을 나타내기 싫기 때문에 그 약점을 감추려고 노력할 때 나타나는 유형들이다.

회유형은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이고 곁에 누가 없으면 죽은 목숨과 같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거부되는 것을 방어하려고 한다.

비난형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지배적이며 비난하는 사람은 무조건 동의하지 않으려하고 남의 잘못을 찾는 탐지자이다. 그러나 내적 감정은 외롭고 실패감으로 꽉 차있다.

초이성형은 매우 정확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의사소통한다. 결코 감정을 내보이는 일이 없어 사전이나 계산기에 비유될 정도지만 내면적으로는 상처받고 있다. 스스로 타인을 위한 정서적 욕

구를 숨기고 타인에게 질투를 느끼게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 한다.

산만형은 주의산만하게 의사소통하는 사람으로 상황에 맞지 않고 부적절한 말들을 많이 하며 요점이 없고 목적도 없다. 그의 내부감정은 혼란스럽고 소외감을 느낀다.

수평형은 불화를 화해시키고 곤경을 타개하며 사람들 사이를 중재하는 유형으로 목소리, 얼굴표정, 몸의 자세, 음성, 언어 등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관계는 편안하면서 자유롭고 솔직하며 자존감이 높다. 이러한 유형은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의 유형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적다(정문자, 2003).

채규만(1996)에 의하면 부부간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듣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목소리의 억양, 자신의 표현 능력 등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부부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한 말하기, 듣기, 문제해결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으로 부정적인 대화·문제해결 유형이 있다. 먼저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은 <표 II-1>에 제시 하는 바와 같이 다음과 같다.

<표 II-1>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영역		내용(요약)	
기능적 의사소통	말하기	감각정보 (Sensory Data)	배우자의 언어 및 비언어적인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말하는 영역
		사고(Thoughts)	자신의 기대하고 해석한 것을 말하는 영역
		감정(Feelings)	외부적 현실과 내적 기대 사이 일치여부의 감정 유발
		소망(Wants)	관계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는 영역
		행동(Actions)	자신의 했던, 하고 있는, 앞으로 할 행위를 말하는 영역
	듣기	주의 기울이기(Attend)	생각, 감정, 소망 등을 모두 말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는 부분이다.
		인정하기(Acknowledge)	잘 따라가고 있는지 언어, 비언어적(고개 끄덕이거나 으음~)으로 표현해 주는 반응이다.
		요청하기(Invite)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이나 행동하는 부분
		요약하기(Summarize)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데 도움 준다.
	문제 해결	질문하기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개방질문을 한다.
		문제확인정의(Identify and Define Issues)	함께 다룰 문제인지 명확화 하는 과정
		계약하기(Contract to Work Through Issue)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서로의 의지와 준비정도 점검단계
		문제 완전히 이해하기 (Understand the Issue Completely)	한사람은 ‘말하기기술’을 다른 사람은 ‘듣기기술’을 사용한다.
		소망확인하기 (Identify Wants)	문제와 관련된 소망을 나누는 단계
		대안 만들기(Generate and Consider Options)	문제이해, 수렴 후 할 수 있는 것부터 행동 목록 표 작성
행동선택하기 (Choose Actions)		가능한 행동 선택하기	
결과 평가 (Evaluate the Outcome)	행동으로 옮긴 후 효과적이었는지 서로 나누기		
역기능적 의사소통	대화유형	통제식 말하기 (Control Talk)	상대방에게 지시, 충고, 설득을 하는 대화유형
		다툼식말하기 (Fight Talk)	표현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대화유형
		양심품고 말하기 (Spite Talk)	상처와 분노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대화유형
	문제 해결 유형	다툼·항복형 (Fight·Capitulate)	부부한쪽이 그만두지 않고 심한 말다툼이 파괴적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형
		설득형 (Persuade)	부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서로 설득하는 형으로 부부간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김
		걸돌기형 (Float)	문제해결을 위한 적합한 행동에 열중하지 않으며 무한정 미결정 상태로 계속 지내는 형
		회피형 (Avoid)	문제 당면 시 잡담이나 문제를 피해가려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형으로 걸으로 문제가 없어보여도 문제 시 하는 사람에게 불만족을 가져옴
		타협형 (Compromise)	주고받음을 통하여 하나의 해결에 이르는 하나 각자 얻고, 잃은 것도 있기에 양쪽 모두 완전만족 안됨

채규만(1996)

기능적인 의사소통인 말하기(Talking)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배려하며 오감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그대로 ‘나-진술법’을 활용하여 말하는 것으로 감각정보, 사고, 감정영역, 소망영역, 행동영역이다.

듣기(Listening)는 잘 듣는 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한, 듣기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주의기울이기, 인정하기, 요청하기, 요약하기, 질문하기이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사람마다 문제에 대해 각기 독특하게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기 때문에 갈등은 어느 영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부부간에 주고받는 메시지에는 사건, 정보, 다른 사람 등 ‘주제 중심적인 것’과 자신의 경험, 느낌, 행동, 소망 등의 ‘배우자 중심적인 것’, 그리고 부부 공통의 경험이나 상호간의 영향, 관계, 상태 등의 ‘관계 중심적인 것’이 있다.

문제해결(Problem Solving)은 부부간의 협동에 초점을 두고 문제 그려보기(Mapping Issues)과정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행동중심의 단계적 해결을 찾아내게 한다.

1단계는 문제를 확인하고, 2단계는 계약하기, 3단계는 문제 완전히 이해하기, 4단계는 소망확인하기, 5단계 대안 만들기, 6단계는 행동선택하기, 7단계는 행동계획 검증하기, 8단계는 결과 평가하기이다.

또한 역기능적인 대화·문제해결유형에서 대화유형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하는 내용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하는 두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이두가지 모두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역기능적 대화유형은 부부관계의 지표로 고려될 수 있는데, 부부 의사소통방식에서 역기능적인 대화유형으로 통제식 말하기, 다툼식 말하기, 앙심품고 말하기를 제시하고 있고, 역기능적 문제해결유형은 부부가 갈등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다툼·항복형, 설득형, 궂돌기형,

회피형, 타협형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의사소통 유형은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눈다. 기능적 의사소통이란 지지적 의사소통으로서 타인배려는 물론 부부간의 문제해결에 있어서나 부부간 공감,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분명하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또한 온정적이면서 긍정적인 표현과 새로운 변화에 민감하고 반응을 잘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란 방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부르는데 편견적인 독제, 통제와 무관심,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거나,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상황에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서로 훼방하거나 투사하는 것, 고집스럽고, 불명확하며 애매모호한 것을 말한다(최정숙, 1996).

여러 학자들이 분류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해서 고찰해 본바, 채규만(1996)의 의사소통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다차원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부부들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실질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효과적으로 듣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 등 부부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한 관점에서 의사소통 유형을 정리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의사소통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2. 결혼만족도에 관한 고찰

1) 결혼만족도의 개념 및 영향요인

(1) 결혼만족도의 개념

결혼의 만족, 행복, 성공 등을 규정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혼만족도는 결혼의 행복, 성공, 질, 적응도 등으로 표현 되고 있지만 객관

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학자들에 따라 달리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학자들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만족도란 용어는 결혼에 대한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는 종속변인으로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는 일반적 용어로서,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1930년대에서부터 일찍이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 이전에는 결혼만족도 검사가 단일차원에서 볼 것인지 다차원으로 볼 것인지가 측정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결혼생활을 다차원으로 개념화하고 다차원척도를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부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과정, 경제적 문제, 성관계,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 등 특수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활발해져 부부 만족도를 다차원으로 개념화하는데 경험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갈등해결방식이나 애정표현 등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의 유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밝혔다(권정혜·채규만, 1999).

Hawkins(1977)는 결혼만족이란 부부관계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신념 등 결혼 생활의 전반에 대한 행복, 만족과 기쁨의 주관적 감정이며 개인의 지각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족간의 애정은 물론 원만한 인간관계, 경제적 안정, 순조로운 성장 및 사회적인 성공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혼생활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송시내, 1999 재인용).

Spanier(1976)는 결혼만족도란 개인의 욕구가 남편, 아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정도를 말하는데 기대와 수행 간에 항상 차이가 존재하여 완전하게 만족할 수는 없다. 이는 모두 조화로운 결혼관계를 이끌기 위해 요구되는 관점을 의미하므로 분석의 단위는 부부가 되어야 하며(지혜정, 2002 재인용), Burr(1977)는 학자들마다 다른 정의를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만족이란 한 개인이 가지는 기대와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보상간의 일치정도를 말하며, 둘째는 주

관적으로 경험되어진 개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즐겁지 않음의 일직선상에서 개인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견해라고 하였다(장은경, 2001 재인용).

또한 노익상(2002)에 의하면 부부는 상대방의 성실성, 진실성과 같은 인간성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노여워하기도 하며, 남편은 아내로부터 애정표현을 충분히 받으면 만족하는 경향이 높고, 아내는 정서적 교류, 남편의 경제적인 힘을 느낄 때 만족의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자들 간에 결혼만족도 개념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와 더불어 이러한 결혼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문제 또한 학자들 에 따라 다소의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결혼만족도의 영향요인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있어서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예측변인을 사회적, 개인적 자원과 생활스타일의 만족, 정서적 만족,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 적합성, 상호작용의 양, 배우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 등의 부부간 상호작용이라 하였다(김수연, 2001).


부부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행위 중 배우자 만족도에 영향을 보다 크게 끼치는 행위는 서로의 문제에 관하여 ‘조용히 상의하기, 조언을 주고받는 행위, 같이 웃기’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집안일 같이하기, 사회적 모임에 같이 가기’등 보다 배우자 만족에 훨씬 더 강한 영향을 준다. 즉, 경제적인 문제, 혹은 친족과의 문제보다 배우자간 서로의 신뢰감과 친밀성의 표현이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부부의 그러한 정서적 행위가 훨씬 더 부부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부부를 둘러싸고 있는 자녀나 친족과의 관계보다 둘만의 정서적 관계가 두 사람의 만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노익상, 2002).

Jacobson과 Margolin(1979), Weiss(1980)에 의하면 결혼만족은 부부

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지지와 인정의 수준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므로, 부부가 서로 도와주는 행동교환은 서로의 친밀감과 보살핌을 촉진 시켜줌으로써 결혼만족을 높여준다. 반면에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부부간의 친밀감이 감소하고 부부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장춘미, 2001 재인용).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부간의 상호작용이며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결혼의 질 또는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박태영, 2005 재인용).

이와 같이 결혼은 한 시점의 상태 및 만족이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특성의 두 개인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변화해가는 역동적 과정이므로 개인 내적 변인과 대인간 과정이 결혼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부부간 의사소통은 결혼생활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부부간의 이해와 수용을 형성하면서 만족과 행복을 이끌게 된다. 이러한 이해와 수용은 배우자간 자기노출과 솔직한 자신의 기대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때 부부관계의 질이 높아진다(송상홍, 2004).

Duvall(1977)에 의하면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관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의사소통의 질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관계의 지속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우는 요인은 어떤 다른 요인보다 의사소통 요인이라 하였고, 부부간에 응집력과 적응력이 좋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이라고 하였다(정운영, 1998 재인용). 또한 Navran(1967)은 행복한 부부와 불행한 부부사이의 7가지 차이점을 지적하였는데 행복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애

기하고 그들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는 것을 더 많이 표현하며 더 넓은 범위의 화제를 가지고 쌍방향 대화를 유지하며 개방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서로의 감정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며 그들만의 특별한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며 보충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교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언어적인 것보다는 언어를 통하여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박은초, 2005 재인용).

Lewis와 Spanier(1979)는 결혼생활의 만족도는 생활유형의 만족과 부부간 상호작용 및 역동에서 작용할 수 있는 요소와 부부간에 응집력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효율적이고, 의사소통 효율성이 높고 부부의 공동 여가 활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김소영, 2003 재인용).

Mace와 Mace(1976)에 의하면 깊이 있는 부부관계란 심도 있는 의사소통을 통해서만 이룩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이룩하는데 핵심요소로 의사소통을 지적했고, 부부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결혼관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의사소통 기술이 갖는 중요성을 지지하였다(최정숙, 1996 재인용).

Clinebell(1975)은 의사소통이 관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라 하였고, 의사소통의 질에 따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과 관계의 지속여부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 갖는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고, 결혼생활의 연구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언어적 표현정도가 매우 개방적이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것과 결혼만족도나 행복도 사이에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송시내, 199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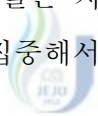
Ward(1993)에 의하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들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부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냈으며, 더 많이

자신을 배우자에게 개방하고, 배우자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생활 만족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태영, 2005 재인용).

부부들은 어떠한 대인관계보다도 서로가 친밀한 관계이기를 기대하고 친밀한 관계의 행동적인 표현은 대화를 이용한 의사소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의사표시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의사표시를 많이 하는 부부가 의사표시를 적게 하는 부부보다 부부간의 만족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또한 부부가 균등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수록 서로를 존중할수록 부부관계는 더욱 성장하게 된다(고정애, 2004).

많은 연구자들은 결혼의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의사소통기술을 말한다. 의사소통기술은 부부간 관계형성기술이며 긍정적인 문제해결과 합리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부부들은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잘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제주도(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거주하는 부부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한 남녀 250쌍에게 2부의 질문지가 함께 든 봉투를 배포한 후 집에서 자신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완성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질문지 작성시 부부간에 서로 의논하지 말고 따로 따로 작성할 것을 부탁하였고 그중 442부(221쌍)를 대부분 직접 회수하였다.

이 중에서 질문지가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답했던 36부(18쌍)를 제외하고 총 406부(203쌍)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성별의 빈도는 남편은 203(50%)명, 아내는 203(50%)명이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부부대화법을 기초로 한 의사소통 문항들과 결혼생활의 만족을 측정하는 한국판 결혼생활만족도검사, 인구 통계학적 변인과 일반적인 대화 경향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포함하여 총 25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의사소통 질문지

부부들의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채규만(1996)에 의해 도입된 부부대화법의 핵심내용과 선행연구들에서 부부의 의사소통 측정을 위해 많이 다루어졌던 문항들을 합하여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제작하였는데 다음 <표 III-1>과 같다.

<표 III-1> 부부 의사소통 유형의 하위 척도

하위 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기능적 의사소통	말하기	1 4* 7* 10 13* 16* 19* 22* 25 27 30* 33 36* 39* 42* 45 48* 50* 52 53*	20	.94		
	듣기	2 5* 8 11* 14 17* 20* 23* 28* 31 34* 37* 40* 43 46*	15			
	문제해결	3* 6 9 12* 15* 18* 21* 24* 26* 29 32* 35 38* 41* 44* 47* 49* 51*	18			
역기능적 의사소통	부정적인 대화유형	통제식 말하기	지시·설교, 명령, 충고	1 5 8	3	.73
		다툼식 말하기	다툼, 비난 위협	2 3 7	3	
		양심품고 말하기	잔소리	4	1	
		위협적인 분노표현	빈정대기, 상처 주는 말, 분노	6 9 10	3	
	부정적인 문제해결	다툼·항복형	1 8	2	.73	
		설득형	2 11	2		
		걸들기형	3 9 12	3		
		회피형	4 6 10	3		
		타협형	5 7 13	3		

* : 역산 채점한 문항임.

의사소통 질문지는 두 차원으로 만들어졌으며 한 차원은 부부대화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하기, 듣기, 문제해결 기술내용과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들로서 53문항으로 대화·문

제해결 기술정도를 측정하게 했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 '정말 그렇다(1)'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5)'까지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이중에서 역산하여 채점하여야 할 문항들은 총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최하 53점에서 최고 265점까지로 총점이 높을수록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 차원은 선행연구들과 부부의사소통방식에서 원활한 대화에 방해가 된다고 언급되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부부의사소통방식을 기초로 하여 부정적인 대화유형 10문항, 부정적인 문제해결유형 13문항을 만들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 되는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으며, 총 76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대화·문제해결 기술정도를 측정하는 첫번째 차원에서는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94이다.



2) 결혼만족도 검사

결혼만족도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도구인 한국판 결혼생활 만족도 (K-MSI) 검사는 Snyder (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MSI)를 권정혜·채규만(1998)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총 160문항이며, 결혼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14개의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관습적 반응 척도(CNV)는 응답자가 자신의 결혼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반응하여 결혼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올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는 타당도 척도이며, 아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결혼만족도 하위척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전반적 불만족 (GDS)	1* 10* 16 22 30 35 41 42 51 58 71 78 80 89* 102* 104* 108* 114* 120* 131 137* 139*	22	.92
정서적 의사소통 (AFC)	2* 8 11 46* 50 72* 79 85 91* 95* 117* 132 138*	13	.82
문제해결 의사소통 (PSC)	5 9 17* 24* 27 33* 40 44 53* 75 81 87* 92 96 106* 109 115 122 129	19	.84
공격행동 (AGG)	20 28* 38 47 57* 65 74* 83 93* 101*	10	.78
공유시간 (TTO)	7 14* 34* 52* 62 67 82* 94* 98 107*	10	.73
경제적 갈등 (FIN)	3* 13 29* 37* 45* 60 66* 90 105* 118 125	11	.72
성적 불만족 (SEX)	6* 12 32 39 59* 64 70 76* 88 97* 111 116 126	13	.79
비 관습적 성역할 (ROR)	4* 19* 21* 25 36* 54* 73* 100* 112 123 130* 136*	12	.71
원가족 문제(FAM)	23* 31* 49* 55 69* 86 99 128 135*	9	.75
배우자가족과의 갈등(CIL)	43 61 77 84 110 113 119 127 133* 134	10	.79
자녀불만족 (DSC)	143 145 147 149 150* 152* 154* 155* 156 158* 159*	11	.72
자녀양육갈등 (CCR)	140* 141 142* 144 146 148* 151* 153* 157 160*	10	.73
관습적반응 (CNV)	15* 18* 26 48 56* 63* 68 103* 121* 124	10	.92

* : 역산 채점한 문항임.

나머지 결혼생활 만족도를 재는 12개척도 중 전반적 불만족척도 (GDS)는 결혼생활에 대한 일반적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며, 나머지 11개 척도는 정서적 의사소통척도(AFC), 문제해결의사소통척도(PSC), 공격행동척도(AGG), 공유시간 갈등척도(TTO), 경제적 갈등척도(FIN), 성적 불만족척도(SEX), 비관습적 성역할척도(ROR), 원가족 문제척도

(FAM),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척도(CIL), 자녀 불만족 척도(DSC), 자녀 양육 갈등척도(CCR)로 결혼생활 특정영역에 관한 불만족도를 측정한다.

2점 척도(그렇다, 아니다)로 평정되는 이 척도는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K-MSI를 구성하고 있는 13개의 하위척도 내용을 부록으로 처리하였다.

3.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결혼만족도 하위 척도 간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원점수를 T점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상관분석과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제주지역의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했다. 통계분석에 의해 나타난 결과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 방식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의사소통 방식을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여 결혼만족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1) 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가설 1. 부부 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1 ‘부부 의사소통 방식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해 제주 부부들의 결혼만족 요인별 상관분석을 실시했다. 상관분석은 부부(전체), 남성 집단, 여성 집단으로 나눠서 기능적·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를 각각 표로 나타내었다.

<표 IV-1> 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상관계수 (N=406)												
		GDS	AFC	FIN	CNV	PSC	SEX	TTO	ROR	AGG	FAM	CIL	CCR	DSC
A1	전	-.494	-.586	-.300	.333	-.565	-.368	-.426	.094	-.230	-.203	-.286	-.452	-.377
	체	(**)	(**)	(**)	(**)	(**)	(**)	(**)		(**)	(**)	(**)	(**)	(**)
	남	-.510	-.629	-.326	.360	-.552	-.384	-.458	.118	-.225	-.117	-.290	-.494	-.454
	여	-.480	-.539	-.272	.308	-.583	-.354	-.389	.063	-.239	-.296	-.282	-.408	-.300
		(**)	(**)	(**)	(**)	(**)	(**)	(**)		(**)	(**)	(**)	(**)	(**)
A2	전	-.445	-.513	-.247	.333	-.566	-.346	-.391	.099	-.237	-.187	-.277	-.430	-.340
	체	(**)	(**)	(**)	(**)	(**)	(**)	(**)	(*)	(**)	(**)	(**)	(**)	(**)
	남	-.459	-.551	-.307	.341	-.611	-.374	-.422	.226	-.271	-.151	-.274	-.416	-.362
	여	-.442	-.484	-.188	.346	-.526	-.323	-.364	-.064	-.215	-.229	-.297	-.450	-.316
		(**)	(**)	(**)	(**)	(**)	(**)	(**)		(**)	(**)	(**)	(**)	(**)
A3	전	-.515	-.542	-.262	.328	-.565	-.401	-.427	.121	-.244	-.206	-.286	-.488	-.421
	체	(**)	(**)	(**)	(**)	(**)	(**)	(**)	(*)	(**)	(**)	(**)	(**)	(**)
	남	-.530	-.585	-.280	.343	-.597	-.462	-.435	.208	-.250	-.136	-.325	-.475	-.455
	여	-.513	-.511	-.253	.337	-.543	-.346	-.428	.018	-.264	-.279	-.257	-.505	-.385
		(**)	(**)	(**)	(**)	(**)	(**)	(**)		(**)	(**)	(**)	(**)	(**)

* p<.05 ** p<.01

▶ 독립변인: A1: 말하기, A2: 듣기, A3: 문제해결

▶ 종속변인 GDS: 전반적 불만족 척도, AFC: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FIN: 경제적 갈등척도, CNV: 관습적 반응, PSC: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SEX:성적 불만족 척도, TTO: 공유시간 척도, ROR: 비관습적 성역할, AGG: 공격행동, FAM: 원가족 문제 척도, CIL: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CCR: 자녀양육갈등척도, DSC:자녀불만족 척도

<표 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를 살펴보면, 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변인 전체에서 관습적 반응과 비관습적 성역할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관습적 반

웅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비관습적 성역할에서는 남성의 듣기($r=.226$)와 문제해결($r=.208$)기술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관습적 반응이란 부부들이 자신의 결혼생활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려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척도이고, 비관습적 성역할은 응답자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 내 역할 및 자녀양육 책임 등 비 전통적 및 근대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차이가 높은 경우는 말하기와 문제해결 의사소통(여성 $-.583$, 남성 $-.552$), 말하기와 공격행동(여성 $-.239$, 남성 $-.225$), 말하기와 원가족 문제(여성 $-.296$, 남성 $-.117$), 듣기와 원가족 문제(여성 $-.229$, 남성 $-.151$), 듣기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여성 $-.297$, 남성 $-.274$), 듣기와 자녀양육 갈등(여성 $-.450$, 남성 $-.416$), 문제해결과 공격행동(여성 $-.264$, 남성 $-.250$), 문제해결과 자녀양육갈등(여성 $-.505$, 남성 $-.475$), 문제해결과 원가족 문제(여성 $-.279$, 남성 $-.136$)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과 여성 모두 기능적 의사소통을 할 때 부적 상관이 높다. 이는 결혼만족도 하위요인들이 불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결국 결혼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볼 때 남성들이 여성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배우자가 배려하며 말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며 잘 들어주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기능적으로 문제해결이 잘 이뤄질 때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또한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비관습적 성역할이 차이가 크다. 이는 가사분담, 자녀 양육 책임감, 여성의 직업 등 가정 내 역할 및 기능평등에 있어서 남성들은 배우자가 배려하며 들어주고,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해결이 기능적으로 잘 이뤄질 때 즉, 가정 내에서 남성들이 배우자가 자신의 생각 및 의견을 들어줄 때 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경우 어느 정

도 가정 내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

여성들은 불행한 어린시절 및 원부모의 불행한 결혼생활등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 현재 부부생활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측정하는 원가족의 문제에서 배우자가 관계향상을 위한 말을 잘해주고, 배려하며 잘 들어 주고, 갈등을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때 원가족 문제 및 갈등이 감소하거나 해결된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배우자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수용,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기술 증진, 배우자 가족에 대한 대처, 성생활에 대한 준비, 분노 조절이 만족스런 부부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가 기능적 의사소통(권정혜·채규만, 1999)이라는 지적과 같은 결과이다.

따라서 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관계 향상 및 갈등을 완화 시키고 결혼 전반에 대한 불만족 변인들을 감소시키며 결혼만족도를 높여준다고 해석된다.



2)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다음은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표 IV-2>는 다음과 같다.

<표 IV-2>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상관계수 (N=406)												
		GDS	AFC	FIN	CNV	PSC	SEX	TTO	ROR	AGG	FAM	CIL	CCR	DSC
A4	전체	.314 (**)	.234 (**)	.185 (**)	-.272 (**)	.315 (**)	.225 (**)	.255 (**)	-.038	.152 (**)	.114 (*)	.240 (**)	.262 (**)	.182 (**)
	남	.349 (**)	.332 (**)	.278 (**)	-.236 (**)	.372 (**)	.234 (**)	.289 (**)	-.087	.242 (**)	.116	.196 (**)	.348 (**)	.258 (**)
	여	.278 (**)	.127	.090	-.307 (**)	.253 (**)	.215 (**)	.217 (**)	.021	.045	.112	.292 (**)	.173 (*)	.107
A5	전체	.521 (**)	.458 (**)	.295 (**)	-.346 (**)	.556 (**)	.327 (**)	.346 (**)	-.030	.340 (**)	.137 (**)	.239 (**)	.465 (**)	.337 (**)
	남	.508 (**)	.428 (**)	.349 (**)	-.303 (**)	.558 (**)	.413 (**)	.338 (**)	-.124	.378 (**)	.155 (*)	.251 (**)	.430 (**)	.386 (**)
	여	.546 (**)	.510 (**)	.257 (**)	-.408 (**)	.574 (**)	.261 (**)	.367 (**)	.061	.337 (**)	.124	.250 (**)	.500 (**)	.293 (**)
A6	전체	.147 (**)	.176 (**)	.100 (*)	-.183 (**)	.199 (**)	.126 (*)	.235 (**)	-.023	.062	.045	-.002	.196 (**)	.128 (*)
	남	.265 (**)	.259 (**)	.234 (**)	-.204 (**)	.334 (**)	.250 (**)	.266 (**)	-.121	.209 (**)	.081	.063	.203 (**)	.166 (*)
	여	.068	.139 (*)	.003	-.221 (**)	.105	.038	.236 (**)	.066	-.033	.018	-.030	.195 (**)	.086
A7	전체	.458 (**)	.377 (**)	.247 (**)	-.322 (**)	.464 (**)	.246 (**)	.289 (**)	-.037	.226 (**)	.185 (**)	.246 (**)	.283 (**)	.203 (**)
	남	.427 (**)	.361 (**)	.268 (**)	-.306 (**)	.481 (**)	.254 (**)	.290 (**)	-.140 (*)	.267 (**)	.179 (*)	.297 (**)	.225 (**)	.233 (**)
	여	.496 (**)	.411 (**)	.237 (**)	-.357 (**)	.464 (**)	.246 (**)	.299 (**)	.065	.211 (**)	.192 (**)	.214 (**)	.336 (**)	.173 (*)

* p<.05 ** p<.01

- ▶ 독립변인: A4: 통제식 말하기, A5: 다툼식 말하기, A6: 양심품고말하기, A7: 위협적인 분노표현
- ▶ 종속변인 GDS: 전반적 불만족 척도, AFC: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FIN: 경제적 갈등척도, CNV: 관습적 반응, PSC: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SEX:성적 불만족 척도, TTO: 공유시간 척도, ROR: 비관습적 성역할, AGG: 공격행동, FAM: 원가족 문제 척도, CIL: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CCR: 자녀양육갈등척도, DSC:자녀불만족 척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비관습적 성역할과

관습적 반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경우는 통제식 말하기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여성=.292, 남성=.196), 다툼식 말하기와 전반적 불만족(여성=.548, 남성=.508), 다툼식 말하기와 정서적 의사소통 (여성=.510, 남성=.428), 다툼식 말하기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여성=.574, 남성=.558), 다툼식 말하기와 공유시간갈등(여성=.367, 남성=.338), 다툼식 말하기와 자녀양육갈등(여성=.500, 남성=.430), 위협적인 분노표현과 전반적 불만족(여성=.496, 남성=.427), 위협적인 분노표현과 정서적 의사소통(여성=.411, 남성=.361), 위협적인 분노표현과 공유시간 갈등(여성=.299, 남성=.290), 위협적인 분노표현과 원가족 문제(여성=.192, 남성=.179), 위협적인 분노표현과 자녀양육 갈등(여성=.336, 남성=.22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통제식 말하기와 정서적 의사소통(남성=.332, 여성=.127), 통제식 말하기와 경제적 갈등(남성=.278, 여성=.090), 통제식 말하기와 공격행동(남성=.242, 여성=.045), 통제식 말하기와 자녀불만족(남성=.258, 여성=.107), 잔소리와 전반적 불만족(남성=.265, 여성=.068), 잔소리와 경제적 갈등(남성=.234, 여성=.003), 잔소리와 문제해결 의사소통(남성=.334, 여성=.105), 잔소리와 성적 불만족(남성=.250, 여성=.038), 잔소리와 자녀불만족(남성=.166, 여성=.086)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위협적인 분노표현과 비관습적 성역할(남성=-.140, 여성=.065)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적으로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유형은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 준다고 해석된다.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은 부부관계 지표로 고려 될 수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어떻게 이야기 하는가’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주지역 부부들이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에는 남녀 공통적으로 정

서적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이 높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잔소리에서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공유 시간 갈등, 공격행동, 자녀양육 갈등, 자녀 불만족 요인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들이 불만족 하위요인을 많이 나타낸 것은 다른 역기능적 대화 유형들이 있지만 그중 배우자의 잔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만족 요인들을 남여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상대방이 지시, 충고를 하는 말, 표현이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잔소리, 또는 빈정대거나, 상처 주는 말을 들을 때 남성들이 불만족이 높고, 여성들은 표현이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말에 불만족이 높다고 분석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생활을 만족하는 부부들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부부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하고, 자신을 개방(박태영, 2005)하며,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애정표현을 충분히 받으면 만족하는 경향이 높고, 여성은 정서적 교류가 있을 때 만족의 수준이 높다(노익상, 2002)고 하였다.

이렇듯 부부가 서로 함께하고, 자신을 노출하며, 서로간의 스킨십이 필요하지만 역기능적 대화를 주고받음으로써 부부간은 서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이혼율이 높은 현재시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05년도 제주지역의 조 이혼율(3.0)이 전국 2위(통계청, 2006)로서 전국 상위권을 웃도는 가운데 성격차이(부부갈등 및 배우자 외도 포함)가 가장 많은 이 시점에서 부부간의 공유시간 갈등 및 성적인 만족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곧 성적 불만족이 결혼생활 불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부부간 성적인 불만족은 서로 함께 하는 공통의 관심사 및 함께하

는 시간이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된다.

특히 남성들의 불만족 요인 중 성적 불만족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부정적인 대화를 많이 사용할 때 불만족이 높다.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성적 불만족이 높다는 권정혜와 채규만(1999)에 의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만족이 있을 때 부부관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Gottman(1999)의 4단계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첫단계, 결혼생활은 괴로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번째 단계, 대화가 무익하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한다. 세번째 단계, 별거생활을 시작한다(한 집안에서의 '물리적, 정신적' 별거 포함). 네번째 단계, 외로움에 시달린다. 부부가 네번째 단계에 오게 되면 한쪽, 또는 양쪽 모두 불륜에 이르게 된다(박태영, 2005 재인용)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참고로 할 때 성적 불만족과 공유시간 갈등은 부부간의 정서 및 친밀성 결여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부간 갈등 해결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배우자 외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으며 배우자 외도는 불륜관계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유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역기능적인 문제해결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역기능적인 문제해결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역기능적 문제해결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상관계수 (N=406)												
		GDS	AFC	FIN	CNV	PSC	SEX	TTO	ROR	AGG	FAM	CIL	CCR	DSC
A8	전	.420	.411	.345	-.338	.552	.303	.378	-.076	.288	.090	.293	.370	.230
	체	(**)	(**)	(**)	(**)	(**)	(**)	(**)	(**)	(**)	(**)	(**)	(**)	(**)
	남	.362	.393	.362	-.289	.511	.322	.337	-.191	.289	.030	.215	.239	.194
	여	.484	.451	.341	-.404	.612	.295	.431	.034	.322	.141	.398	.488	.257
	체	(**)	(**)	(**)	(**)	(**)	(**)	(**)	(**)	(**)	(*)	(**)	(**)	(**)
A9	전	.313	.221	.161	-.156	.329	.228	.136	-.082	.199	.114	.230	.221	.212
	체	(**)	(**)	(**)	(**)	(**)	(**)	(**)	(**)	(**)	(*)	(**)	(**)	(**)
	남	.314	.250	.213	-.122	.354	.209	.171	-.225	.215	.122	.204	.251	.294
	여	.310	.188	.107	-.185	.302	.244	.097	.081	.178	.107	.259	.193	.136
	체	(**)	(**)	(**)	(**)	(**)	(**)	(**)	(**)	(*)	(**)	(**)	(**)	(**)
A10	전	.465	.386	.338	-.277	.531	.370	.356	-.083	.253	.172	.365	.294	.268
	체	(**)	(**)	(**)	(**)	(**)	(**)	(**)	(**)	(**)	(**)	(**)	(**)	(**)
	남	.426	.385	.328	-.263	.540	.325	.319	-.091	.345	.179	.287	.255	.273
	여	.507	.389	.348	-.293	.521	.418	.398	-.072	.141	.166	.461	.334	.264
	체	(**)	(**)	(**)	(**)	(**)	(**)	(**)	(**)	(*)	(*)	(**)	(**)	(**)
A11	전	.414	.405	.290	-.284	.488	.249	.408	-.066	.277	.172	.201	.329	.289
	체	(**)	(**)	(**)	(**)	(**)	(**)	(**)	(**)	(**)	(**)	(**)	(**)	(**)
	남	.383	.424	.308	-.319	.477	.276	.400	-.072	.270	.064	.120	.244	.269
	여	.449	.402	.281	-.270	.511	.230	.425	-.064	.308	.262	.299	.405	.305
	체	(**)	(**)	(**)	(**)	(**)	(**)	(**)	(**)	(**)	(**)	(**)	(**)	(**)
A12	전	-.255	-.296	-.218	.143	-.288	-.166	-.270	.079	-.110	-.109	-.122	-.311	-.170
	체	(**)	(**)	(**)	(**)	(**)	(**)	(**)	(**)	(*)	(*)	(*)	(**)	(**)
	남	-.184	-.281	-.211	.112	-.266	-.188	-.221	.080	-.077	-.080	-.124	-.254	-.222
	여	-.333	-.328	-.234	.193	-.323	-.153	-.330	.084	-.170	-.138	-.137	-.369	-.118
	체	(**)	(**)	(**)	(**)	(**)	(*)	(**)	(**)	(*)	(*)	(**)	(**)	(**)

* p<.05 ** p<.01

▶ 독립변인: A8: 다툼·항복형, A9: 설득형, A10: 갈등기형, A11: 회피형, A12: 타협형

▶ 종속변인 GDS: 전반적 불만족 척도, AFC: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FIN: 경제적 갈등척도, CNV: 관습적 반응, PSC: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SEX:성적 불만족 척도, TTO: 공유시간 척도, ROR: 비관습적 성역할, AGG: 공격행동, FAM: 원가족 문제 척도, CIL: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CCR자녀양육갈등척도, DSC:자녀불만족 척도

역기능적 문제해결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타협형 및 관습적 반응과 비관습적 성역할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타협형과 결혼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타협형은

부부가 서로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문제를 함께 절충하여 협상하는 의사소통 방식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상관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경우는 다툼·항복형과 경제적 갈등(남성=.362, 여성=.341), 다툼·항복형과 성적 불만족(남성=.322, 여성=.295), 다툼·항복형과 비관습적 성역할(남성=-.191, 여성=.034), 설득형과 전반적 불만족(남성=.314, 여성=.310), 설득형과 정서적 의사소통(남성=.250, 여성=.188), 설득형과 경제적 갈등(남성=.213, 여성=.107), 설득형과 문제해결 의사소통(남성=.354, 여성=.302), 설득형과 공유시간 갈등(남성=.171, 여성=.097), 설득형과 비관습적 성역할(남성=-.225, 여성=.081), 설득형과 공격행동(남성=.215, 여성=.178), 설득형과 자녀양육 갈등(남성=.251, 여성=.193), 설득형과 자녀불만족(남성=.294, 여성=.136), 곁돌기형과 문제해결 의사소통(남성=.540, 여성=.521), 곁돌기형과 공격행동(남성=.345, 여성=.141), 곁돌기형과 원가족 문제(남성=.179, 여성=.166), 곁돌기형과 자녀 불만족(남성=.273, 여성=.264), 회피형과 정서적 의사소통(남성=.424, 여성=.402), 회피형과 경제적 갈등(남성=.308, 여성=.281), 회피형과 성적 불만족(남성=.276, 여성=.230), 타협형과 자녀불만족(남성=-.222, 여성=-.118)로 정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역기능적 문제해결유형은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역기능적 문제해결유형은 갈등문제를 부부가 다루는 방식으로 전체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남녀 공통적으로 역기능적 문제해결에서는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자녀 양육갈등에서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갈등이 발생했을 때 역기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부 모두가 불만족이 높다고 해석된다. 즉, 말다툼을 할 때 어느 한쪽이 그만두지 않고 심한 말다툼이 파괴적

싸움으로 번지게 하는 스타일과 문제를 무한정 미결정 상태로 두는 스타일에서 남성들과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불만족이 높고, 부부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서로 설득하는 스타일에서 남성들이 높게 나타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잡담이나 문제를 피해 가려는 스타일, 서로 주고받음은 있으나 각자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어 완전 만족이 안 되는 스타일에서는 여성들이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 보다 불만족도가 높지만 남성들이 여성들 보다 불만족이 차이가 있는 영역으로는 부부들이 말다툼을 하다가 심한 말다툼으로 번지거나 파괴적으로 갈 때 성적 불만족이 높고, 각자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코자할 때 정서적 의사소통, 공격행동이 높고, 문제를 무한정 미결정 상태로 둘 때 문제해결의사소통 및 공격행동이 높으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잡담이나 문제를 피해 가려고 할 때 정서적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의 갈등에 있어서 타협을 하면 갈등이 감소하고, 설득을 당했다고 생각되면 불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여성들은 원가족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서 문제해결 할 때 다툼이 먼저 파괴적인 싸움으로 갈 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잡담을 하거나 판청을 피울 때 불만족이 높고, 공격행동은 부부가 타협을 할 때 감소한다. 그리하여 역기능적 문제해결 유형은 불만족도가 높다고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 즉 <표 IV-1>, <표 IV-2>, <표 IV-3>을 통합하여 전체 종합해 보면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은 긍정되었다.

2.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차이 검증

가설 2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는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만족도 요인별 t검증결과는 <표 IV-4>에 나타나 있다.

<표 IV-4>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 차이

종속변인	성별	N	M	SD	t
GDS	남편	203	50.60	9.04	1.104
	아내	203	49.60	9.21	
AFC	남편	203	51.20	10.58	1.781
	아내	203	49.38	9.99	
FIN	남편	203	52.15	9.93	1.082
	아내	203	51.09	10.07	
CNV	남편	203	51.98	9.37	-2.625**
	아내	203	54.51	10.00	
PSC	남편	203	49.36	9.72	1.397
	아내	203	48.05	9.17	
SEX	남편	203	51.23	9.24	0.917
	아내	203	50.38	9.49	
TTO	남편	203	50.85	9.61	1.058
	아내	203	49.87	9.14	
ROR	남편	203	53.16	10.30	-0.678
	아내	203	53.81	8.98	
AGG	남편	203	52.17	9.29	2.778**
	아내	203	49.77	8.07	
FAM	남편	203	50.29	8.90	0.123
	아내	203	50.18	9.71	
CIL	남편	203	50.49	9.92	1.991
	아내	203	48.65	8.75	
CCR	남편	194	50.66	9.41	0.043
	아내	194	50.62	9.52	
DSC	남편	194	49.79	9.22	-0.712
	아내	194	50.47	9.59	

** p<.01

▶ 종속변인 GDS: 전반적 불만족 척도, AFC: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FIN: 경제적 갈등척도, CNV: 관습적 반응, PSC: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SEX:성적 불만족 척도, TTO: 공유시간 척도, ROR: 비관습적 성역할, AGG: 공격행동, FAM: 원가족 문제 척도, CIL: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CCR: 자녀양육 갈등, DSC: 자녀 불만족

제주 부부들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나타낸 <표 IV-4>에서 보면 관습적 반응에서 남편(M=51.98), 아내(M=54.51), ($t=-2.625$, $p<.01$), 공격행동에서 남편(M=52.17), 아내(M=49.77), ($t=-2.625$, $p<.01$)수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부생활에 있어서 아내가 남편보다 부부관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제시하고 왜곡하려는 경향성이 높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언어적, 신체적 공격 및 위협적 행동에 대한 경험이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권정혜, 채규만(1999), 송시내(1999)의 연구에서 남편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경향이 높다고 밝힌 것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아내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이 높지만 가정사를 밖으로 노출되는 점을 꺼려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높아 불만족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왜곡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또한 남편들이 공격적 행동의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부부간의 갈등이 누적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 앞의 <표IV-2>, <표IV-3>에서 보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역기능적 의사소통 중 특히 잔소리나 충고, 지시를 할 때 남편들이 공격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들이 가정 내에서 화가 났을 때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위협적 행동, 또는 상대 배우자를 가볍게 밀치는 행동에서부터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동에 이르는 다양한 신체적인 공격행동의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내들은 상대방의 성실성, 진실성과 같은 인간성 때문에 즐

거위 하기도하고 노여워하기도 한다는 노익상(2002)의 연구 결과를 볼 때 부부간 정서적 교류가 만족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남편의 공격행동은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은 곧 정서에 상처를 입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곧 가정폭력으로 이어지고, 또한 이혼율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으로 볼 때 권정혜, 채규만(1999)의 연구에서와 같이 일생동안 같이 살면서 괴로워하느니 갈라서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이혼으로 결혼생활을 종결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출생지역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가설 3 출생 지역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들의 출생 지역에 따라서 결혼만족도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IV-5>에 제시하였다.

<표 IV-5> 출생지역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종속변인	고향	N	M	SD	t
GDS	제주	350	50.25	9.22	0.873
	타도	56	49.11	8.64	
AFC	제주	350	50.77	10.27	2.388*
	타도	56	47.25	10.16	
FIN	제주	350	51.69	9.83	0.395
	타도	56	51.13	11.09	
CNV	제주	350	53.14	9.67	-0.553
	타도	56	53.93	10.39	
PSC	제주	350	48.96	9.36	1.500
	타도	56	46.95	10.00	
SEX	제주	350	51.19	9.41	2.101*
	타도	56	48.38	8.77	
TTO	제주	350	50.89	9.29	2.898**
	타도	56	47.02	9.33	
ROR	제주	350	53.96	9.54	2.507*
	타도	56	50.50	9.89	
AGG	제주	350	50.83	8.65	-0.829
	타도	56	51.88	9.54	
FAM	제주	350	50.21	9.21	-0.107
	타도	56	50.36	9.96	
CIL	제주	350	49.67	9.36	0.534
	타도	56	48.95	9.58	
CCR	제주	336	50.83	9.48	1.029
	타도	51	49.38	9.28	
DSC	제주	336	50.24	9.33	0.570
	타도	51	49.44	9.88	

* p<.05 ** p<.01

▶ 종속변인 GDS: 전반적 불만족 척도, AFC: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FIN: 경제적 갈등척도, CNV: 관습적 반응, PSC: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SEX:성적 불만족 척도, TTO: 공유시간 척도, ROR: 비관습적 성역할, AGG: 공격행동, FAM: 원가족 문제 척도, CIL: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CCR: 자녀양육갈등, DSC: 자녀 불만족

결혼 전 출생 지역에 따른 결혼만족도에서 타도 태생이 제주 태생보다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에서 제주태생(M=50.77), 타도태생(M=47.25), (t=2.388, p<.05), 성적 불만족은 제주태생(M=51.19), 타도태생(M=48.38), (t=-2.101, p<.05), 공유시간은 제주태생(M=50.89), 타도태생(M=47.02), (t=-2.898,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부부들은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는 부부들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보냈으며 더 많이 자신을 배우자에게 개방하였다.

또한 부부가 서로에게 보고하는 전체시간과 결혼만족도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박태영, 2005)는 논문과 다르게 부부간의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 성적 불만족에 차이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부간의 공통의 관심사와 함께하는 시간의 부족으로 성적 불만족 및 정서적으로 거리를 느끼게 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결혼생활에서 만족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한 요인을 보면 제주 지역 특유의 문화에 적응이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은 배우자와 정서적으로 거리를 느낌과 동시에 무관심하다고 느끼게 되고,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는 부부간의 친밀감이 감소하고 부부관계에 긴장이 생길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소외감과 불신감을 느끼게 되어 불만족도가 높게 된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가설 3은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3. 부부간 일반적인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

가설 4. 부부간 일반적 대화 경향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은 부부간 일반적인 대화경향에 따라서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은 제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요인별 F검증 결과는 <표 IV-6>, <표 IV-7>와 같다.

1) 일반적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갈등) 차이

부부간 일반적 대화경향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는 다음 <표 IV-6>와 같다.

<표 IV-6> 일반적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성적불만족, 공유시간갈등) 차이(1) (F)

	구분	N	M	SD	F	Scheffé	
GDS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4.68	9.35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50.09	9.85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1.90	10.84	7.273***	A>B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48.59	7.92		A>D
	합계		406	50.10	9.13		
AFC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7.11	10.13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51.19	10.66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2.00	11.60	14.341***	A>D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47.71	8.98		
	합계		406	50.29	10.31		
FIN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4.39	9.57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51.42	9.81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0.93	10.33	1.713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51.07	10.12		
	합계		406	51.62	10.00		
CNV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0.96	8.18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2	53.04	9.92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3.8	10.60	1.391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5	53.91	9.91		
	합계		403	53.25	9.76		
PSC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3.05	7.95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48.64	9.92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0.97	10.11	6.427***	A>D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47.24	9.12		
	합계		406	48.70	9.46		
SEX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5.04	10.38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50.54	9.64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4.70	8.92	7.877***	A>B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49.24	8.51		A>D
	합계		406	50.81	9.36		C>D
TTO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4.91	9.06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51.38	9.54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2.07	9.30	8.919***	A>D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48.32	8.87		B>D
	합계		406	50.36	9.38		

*** p<.001

종속변인 : GDS: 전반적 불만족 척도, AFC: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FIN: 경제적 갈등척도, CNV: 관습적 반응, PSC: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SEX:성적 불만족 척도, TTO: 공유시간 척도

- ▶ ①부부모두 잘 안함 : 부부모두 이야기 하지 않는다.
- ②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 부인이 주로 이야기하고 남편이 듣는다.
- ③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 남편이 주로 이야기하고 부인이 듣는다.
- ④부부가 서로 주고받음 :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전반적 불만족(F=7.273, $p<.001$), 정서적 의사소통문제(F=14.341, $p<.001$),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F=6.427, $p<.001$), 성적 불만족(F=7.877, $p<.001$), 공유시간 갈등(F=8.919,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é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부부 모두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불만족이 높은 반면, 부부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 않는 것 즉, 대화를 하지 않음에 있어 전반적 불만족, 서로간의 의견 불일치, 성적 불만족, 부부 공통의 관심사 및 함께하는 시간 부족으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함을 느끼게 되어 불만족도가 높다고 해석된다.

2) 일반적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비관습적 성역할, 공격행동, 원부모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양육갈등, 자녀불만족) 차이

부부간 일반적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 차이는 <표 IV-7>과 같다.

<표 IV-7> 일반적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비관습적 성역할, 공격행동, 원가족문제, 배우자가족과의 갈등, 자녀양육갈등, 자녀불만족) 차이(2) (F)

	구분	N	M	SD	F	Scheffé	
ROR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2.7	8.96	.967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54.65	9.42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1.93	8.53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53.28	10.10		
	합계		406	53.48	9.65		
AGG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2.77	8.32	.960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50.53	8.58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0.27	6.98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50.83	9.21		
	합계		406	50.97	8.77		
FAM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1.66	8.995	.687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49.52	8.74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0.70	9.33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50.17	9.69		
	합계		406	50.23	9.3		
CIL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1.32	9.16	.892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13	49.52	9.45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0.07	10.07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207	49.05	9.31		
	합계		406	49.57	9.38		
CCR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4.38	9.08	5.593***	A>D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06	51.47	9.29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1.73	12.17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196	48.95	8.84		
	합계		388	50.64	9.45		
DSC	부부 모두 잘안함	A	56	52.63	9.31	3.429**	
	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B	106	49.83	9.04		
	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C	30	53.40	11.64		
	부부가 서로 주고 받음	D	196	49.09	9.07		
	합계		388	50.13	9.4		

** p<.01 *** p<.001

종속변인 : ROR: 비 관습적 성역할, AGG: 공격행동, FAM: 원가족 문제 척도, CIL: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CCR:자녀양육갈등척도, DSC:자녀불만족 척도

- ▶ ①부부모두 잘 안함 : 부부모두 이야기 하지 않는다.
 ②부인이 주로 남편이 들음 : 부인이 주로 이야기하고 남편이 듣는다.
 ③남편이 주로 부인이 들음 : 남편이 주로 이야기하고 부인이 듣는다.
 ④부부가 서로 주고받음 :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자녀양육갈등은(F=5.593, p<.001), 자녀불만족은(F=3.429, p<.001)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Scheffé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부부 모두 의사소통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불만족이 높은 반면, 부부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결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녀 양육문제에서 부부간의 ‘서로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자녀 양육의 문제, 훈육 방식 등 의견의 불일치를 가져오게 되어 부부가 자녀 양육문제에 갈등을 겪음은 물론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4는 부분적으로 긍정되었다.

5. 결혼만족도에 대한 의사소통방식 회귀분석

가설 5.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가설 5는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연구대상은 제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요인별 회귀 분석 결과는 <표 IV-8>, <표 IV-9>, <표 IV-10>, <표 IV-11>, <표 IV-12>에 나타나 있다.

1) 의사소통방식이 전반적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5-1 의사소통 방식은 전반적인 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1의 ‘의사소통방식은 전반적 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증하기 위한 결과는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8> 의사소통방식이 전반적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R ²	β	F	ΔR^2
GDS	다툼식대화	.271	.521	150.445***	.270
	문제해결방식	.363	-.345	114.676***	.360
	위협적인대화	.407	.239	92.018***	.403
	걸들기형	.422	.147	73.049***	.416
	말하기	.431	-.147	60.494***	.423
	잔소리	.438	-.091	51.783***	.429
	다툼·항복형	.446	.102	45.754***	.436

▶ 종속변인 GDS: 전반적 불만족 척도

*** p<.001

전반적 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툼식 대화유형, 문제해결방식, 위협적인 대화유형, 걸들기형, 말하기, 잔소리, 다툼·항복형으로 이러한 변인들은 결혼만족도를 43.6%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설 5-1은 긍정되었다.

2) 의사소통 방식이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

가설 5-2 의사소통 방식은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2의 ‘의사소통방식은 정서적 의사소통문제,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결과는 <표 IV-9>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IV-9> 의사소통방식이 정서적 의사소통, 성적불만족, 공유시간갈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R ²	β	F	ΔR^2
AFC	말하기	.344	-.586	211.425***	.342
	다툼식말하기	.395	.252	131.756***	.392
	위협적인대화	.411	.142	93.475***	.407
	듣기	.423	-.148	73.348***	.417
	타협형	.429	-.086	60.091***	.422
SEX	문제해결	.161	-.401	77.325***	.159
	걸돌기형	.203	.233	51.247***	.199
	설득형	.214	.111	36.491***	.208
TTO	문제해결	.182	-.427	89.977***	.180
	회피형	.245	.277	65.280***	.241
	말하기	.257	-.169	46.235***	.251
	통제식말하기	.266	.101	36.246***	.258
	타협형	.273	-.099	30.067***	.264

*** p<.001

종속변인 : AFC: 정서적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 SEX: 성적 불만족 척도, TTO: 공유시간 척도,

의사소통 방식인 말하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유형, 듣기, 타협형이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42.2%로 나타났다.

성적 불만족은 20.8%가 문제해결방식, 걸돌기형, 설득형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문제해결, 회피형, 말하기, 통제식 대화유형, 타협형은 공유시간갈등에 26.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2는 긍정되었다.

3) 의사소통 방식이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경제적 갈등,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5-3 의사소통 방식은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3의 ‘의사소통 방식이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 공격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밝힌 결과는 <표 IV-10> 에 나타나 있다.

<표 IV-10> 의사소통방식이 문제해결의사소통, 경제적 문제, 공격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R ²	β	F	ΔR^2
PSC	듣기	.321	-.566	190.610***	.319
	걸돌기형	.432	.364	153.401***	.429
	다툼식 말하기	.489	.283	128.108***	.485
	말하기	.512	-.208	105.056***	.507
	다툼·항복형	.528	.173	89.666***	.523
	위협적인 분노표현	.538	.119	77.507***	.531
	잔소리	.543	-.077	67.617***	.535
FIN	말하기	.119	.345	211.425***	.117
	다툼식 말하기	.151	.214	131.756***	.147
	위협적인 대화	.169	-.150	93.475***	.163
AGG	다툼식 말하기	.116	.340	52.796***	.113
	다툼·항복형	.133	.154	30.881***	.129

*** p<.001

종속변인 : FIN: 경제적 갈등척도, PSC:문제해결 의사소통 척도, AGG: 공격행동,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에는 듣기, 걸돌기형, 다툼식 대화유형, 말하기, 다툼·항복형, 위협적인 대화유형, 잔소리가 53.5% 영향을 준다.

의사소통 방식인 말하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는 경제적 갈등에 16.3% 영향을 준다.

공격행동은 의사소통방식인 다툼식 대화유형, 다툼·항복형에 의해 12.9%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가설 5-3는 긍정되었다.

4) 의사소통방식이 배우자 가족의 갈등, 원가족 문제, 자녀양육 갈등, 자녀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가설 5-4 의사소통 방식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원가족 문제, 자녀양육갈등, 자녀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4 ‘의사소통 방식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원가족 문제, 자녀양육갈등, 자녀불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1> 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원가족문제, 자녀양육갈등, 자녀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R ²	β	F	ΔR^2
CIL	겉돌기형	.133	.365	61.948***	.131
	설득형	.156	.156	37.217***	.152
	잔소리	.172	-.135	27.873***	.166
	듣기	.192	-.163	23.873***	.184
	통제식 말하기	.200	.111	20.047***	.190
FAM	문제해결	.042	.206	17.869***	.040
	위협적인분노표현	.058	.133	12.450***	.054
CCR	문제해결	.238	-.488	120.763***	.236
	다툼식 말하기	.310	.303	86.365***	.306
	타협형	.322	-.122	60.721***	.316
	말하기	.332	-.154	47.573***	.325
	통제식 말하기	.340	.098	39.392***	.332
DSC	문제해결	.177	-.421	83.203***	.175
	다툼식 말하기	.202	.178	48.776***	.198

*** p<.001

종속변인 : FAM: 원가족 문제 척도, CIL: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CCR:자녀양육갈등, DSC:자녀불만족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는 의사소통방식인 겉돌기형, 설득형, 잔소리, 듣기, 통제식 대화유형이 19.0%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 갈등은 의사소통방식인 문제해결방식, 위협적인 대화유형이 5.4%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소통방식인 문제해결방법, 다툼식 대화유형, 타협형, 말하기, 통제식 대화유형으로 그 영향력

은 33.2%이다.

자녀 불만족에는 의사소통 방식인 문제해결방법, 다툼식 대화유형이 19.8%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4는 긍정되었다.

5) 의사소통방식이 관습적 반응, 비관습적 성역할에 미치는 영향

가설 5-5 의사소통 방식은 관습적 반응, 비관습적 성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5 ‘의사소통 방식은 관습적 반응, 비관습적 성역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V-12> 의사소통방식이 관습적 반응, 비관습적 성역할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R ²	β	F	ΔR^2
CNV	말하기	.120	-.586	54.643***	.118
	다툼식대화	.161	.252	38.489***	.157
	위협적인대화	.186	.142	30.372***	.180
	듣기	.201	-.148	25.098***	.193
	타협형	.209	-.086	21.015***	.199
ROR	문제해결	.015	.121	6.029*	.012

* p<.05 *** p<.001

종속변인 : CNV: 관습적 반응, ROR: 비 관습적 성역할,

관습적 반응 척도에는 의사소통 방식인 말하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유형, 듣기, 타협형이 19.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 관습적 성역할은 의사소통방식인 문제해결방식이 1.2%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5-5는 긍정되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나 부부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제주 지역의 이혼율이 전국 상위권인 이유와 가족의 핵심인 부부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결혼생활은 항상 좋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에 직면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부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서 볼 때 결혼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면서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효과적인 부부의사소통을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의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하여 제주 부부들이 부부갈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들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결혼만족도에 의사소통 방식이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부부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간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2.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출생지역별 결혼만족도는 어떠한가?
4. 부부간 일반적 대화 경향과 결혼만족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5. 부부의사소통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연구문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부 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가설 2.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출생지역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부간 일반적 대화 경향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도내의 부부들을 본 연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총 406부(203쌍)의 검사지가 분석되었다.

검사지는 의사소통 방식 검사(채규만, 1996)를 사용하였는데 기능적 의사소통 53문항과 부부가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10문항, 13문항등 총 76문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결혼만족도에 대한 다차원적 측정도구인 한국판 결혼생활 만족도(K-MSI) 검사는 Snyder (1979)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를 권정혜, 채규만(1998)이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표준화한 것으로 총 160문항이며, 결혼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다.

본연구의 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의사소통 방식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이를 회귀분석을 통해 다시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 집단과 남성 집단, 제주태생 집단과 타도태생 집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차이검증에는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은 부부 의사소통 방식과 결혼만족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기능적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 변인 전체에서 관습적 반응과 비관습적 성역할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즉, 관습적 반응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비관습적 성역할에서는 남성의 듣기와 문제해결기술에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부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경우는 말하기와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격행동, 원가족 문제, 듣기와 원가족 문제,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자녀양육 갈등, 문제해결과 공격행동, 자녀양육갈등, 원가족 문제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비관습적 성역할과 관습적 반응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 반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경우는 통제식 말하기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다툼식 말하기와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 자녀양육갈등, 위협적인 분노표현과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 원가족 문제, 자녀양육 갈등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그리고 남성들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통제식 말하기와 정서적 의사소통, 경제적 갈등, 공격행동, 자녀불만족, 잔소리와 전반적 불만족,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자녀불만족으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위협적인 분노표현과 비관습적 성역할은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역기능적 문제해결과 결혼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타협형과 관습적 반응, 비관습적 성역할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높은 정적상

관을 보인 반면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높은 경우는 다툼·항복형과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비관습적 성역할, 설득형과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경제적 갈등,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유시간 갈등, 비관습적 성역할 공격행동, 자녀양육 갈등, 자녀불만족, 껄들기형과 문제해결 의사소통, 공격행동, 원가족 문제, 자녀 불만족, 회피형과 정서적 의사소통, 경제적 갈등, 성적 불만족, 타협형과 자녀불만족으로 정적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설 2의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는 아내들은 관습적 반응에서 남편들보다 차이가 크고, 공격행동에서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설 3에서 출생지역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는 정서적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에서 타도 태생이 제주 태생보다 불만족이 크게 나타났다.

가설 4에서 부부간 일반적 대화 경향에 따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는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보다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안 할 때’ 전반적 불만족,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해결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자녀양육갈등, 자녀 불만족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설 5. 부부 의사소통 방식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전반에 대한 불만족에는 말하기, 문제해결, 다툼식 말하기, 잔소리, 위협적인 대화유형, 다툼·항복형, 껄들기형이 43.6% 영향을 준다.

둘째,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에는 말하기, 듣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유형, 타협형이 42.2% 영향을 준다.

문제해결방식, 걸돌기형, 설득형이 성적 불만족에 20.8% 영향을 준다.

공유시간갈등에는 말하기, 문제해결, 통제식 말하기, 회피형, 타협형이 26.4% 영향을 준다.

셋째, 말하기, 듣기, 걸돌기형, 다툼식 대화유형, 잔소리, 위협적인 대화유형, 다툼·항복형이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53.5% 영향을 준다.

경제적 갈등에는 말하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가 16.3%나 영향을 준다.

공격행동에는 다툼식 대화유형, 다툼·항복형이 12.9% 영향을 준다.

네째, 듣기, 통제식 대화유형, 잔소리, 걸돌기형, 설득형이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에 19.0%가 영향을 주고 있다.

원가족 갈등에는 문제해결, 위협적인 대화유형이 5.4% 영향을 준다.

자녀양육 갈등에는 33.2%나 말하기, 문제해결, 통제식 대화유형, 다툼식 대화유형, 타협형이 영향을 준다.

자녀 불만족에는 문제해결, 다툼식 대화유형이 19.8% 영향을 준다.

다섯째, 관습적 반응척도에는 말하기, 듣기, 다툼식 대화유형, 위협적인 대화유형, 타협형이 19.9%가 영향을 준다.

비 관습적 성역할은 문제해결방식이 1.2% 영향을 준다.

2. 결론

연구결과와 해석을 바탕으로 밝혀진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의사소통방식과 결혼만족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부부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서 의사소통이 기능적일 때 결혼만족도가 높고, 역기능적일 때 결혼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것은 부부 의사소통의 향상을 위한 말하기, 듣기, 문제해결을 기능적으로 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다. 즉, 상대 배우자가 기능적 의사소통 기술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결혼만족도는 향상된다.

그리고 남녀차이를 볼 때 남성들은 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대화유형에서 차이가 크고, 역기능적 문제해결에서 여성들이 차이가 크다.

또한 부부간 불만족을 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 부부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혼 전반에 대한 불만족도 변인 중 부부 내적 요인과 상호작용 과정으로 볼 때 전반적 불만족,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 정서적 의사소통에서 불만족도가 높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면 성적인 불만족과 공유시간 갈등은 부부간의 정서 및 친밀성 결여를 가져오게 되므로 부부간 갈등 해결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한 시점의 상태 및 만족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변화해가는 역동적 과정이므로 결혼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의한 갈등 해소는 부부 상호간 기능적 의사소통기술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과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배우자간 관계증진에 원동

력이 될 수도 있다.

둘째, 부부간 결혼만족도에는 부분적 영역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부부간 결혼만족도 차이 검증에서 남편은 공격행동에서 차이가 크고, 아내들은 관습적 반응에 차이가 크다. 이러한 현상은 앞의 결론과 연결 지어 본다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개인이 결혼을 하여 같이 하면서 사소한 의견 대립이나 견해차이가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 시킨다.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다 보면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 분노는 언어적, 신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어 그 형태에 관계없이 부부관계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파괴적 영향은 불만족을 가져오게 되면서 결혼 생활을 종결하려는 방향으로 결정 내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즉 부부들은 부부 관계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일생동안 힘들게 사느니 갈라서는 편이 낫다고 하면서 이혼으로 종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내들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불만족이 높지만 아내들이 가정사 노출을 꺼려하고 은폐하려는 경향이 높아 불만족이 있어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보이려는 왜곡된 행동을 한다.

셋째, 출생지역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부분적 차이가 있다.

출생지역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에서, 타도가 제주지역보다 정서적 의사소통, 성적 불만족, 공유시간 갈등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에서 역기능적 대화와 문제해결 방법상의 문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기도 하지만 타도와의 다른 지역 문화차이와 지역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오는 갈등일 수도 있다.

넷째, 일반적 대화 경향과 결혼만족도는 부분적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대화경향과 결혼만족도 차이에서는 부부가 서로 대화하지 않을 때 결혼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대화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박태영(2005)과 노익상(2002)은 논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결혼생활을 만족하는 부부들은 결혼생활이 불만족하는 부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고, 배우자 만족에 정서적 행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듯이 서로 대화가 잘 될 때 서로의 공통 관심사가 생기면서 신뢰감이 형성되어 정서적으로 서로 친밀감과 지지를 받았다고 느끼면서 만족도가 상승하게 된다.

다섯째, 의사소통방식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결과에 따르면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 및 역기능적 의사소통인 부정적 대화유형과 문제해결 유형은 결혼만족도 하위요인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된 결과, 부부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기능적 의사소통은 부부들이 결혼만족도 향상에 기여를 한다.

부부가 살아가면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있게 되지만,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경험과 관심을 서로 나누고 사랑과 존경을 표현함으로써 더욱 친밀하고 정서적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만족스런 관계의 길은 부부간의 풍부한 대화가 그 지름길이라고 할 만큼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부부 서로가 관계 향상을 위한 말하기기술, 상대

방을 배려하며 잘 듣는 기술,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가장 중요하다.

3.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검증 되었으므로 일반 부부들이 다양한 방법에 의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을 결혼 전 예비부부 및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 가정의 정상부부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전체 부부의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부부대화법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부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상담 및 관찰을 병행하면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주 부부들의 결혼만족도 향상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병권(2004). 가족체계 및 가족의사소통 유형과 중학생의 문제행동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정애(2004). 기혼 여성의 성 만족 및 일반적 의사소통과 성관련 의사소통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채규만(1999).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1. 한국심리학회지 Vol. 18(1). 123-139
- 권정혜·채규만(2000). 부부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Vol. 19(2). 207-218
- 김미라(2001). 부부친밀도에 미치는 요인 연구. 목원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01). 부부들이 지각하는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 사회적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녀(2004). K-MSI를 활용한 기혼자의 결혼만족도(가족생활주기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훈[기자](2006. 2. 10.(금) 국제면). [韓-美-佛-日부부 라이프스타일] 한국부부“사랑하긴 하는 건가?”, 동아일보
- 김선남(2005). 가족기능화 상담 모형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 상담학연구 Vol. 6(3). 989-1010
- 김소영(2003). 개인특성 및 의사소통에 따른 부부 적응관계 연구(자아 존중감, 정서 안정성 및 의사소통유형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2002). 가족상담. 학지사
- 김혜숙(2004). 가족치료이론과 기법. 학지사
- 김혜주, 전종국(2005). 부부의 정서역량과 부부 만족도 지각간의 관계. 영남대학교 심리학과 카운셀링 상담문화연구소, 상담학 연구 Vol. 6(2) 633-644
- 김홍란(2005). 의사소통의 세대전이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익상(2002). 한국도시 기혼남녀의 배우자 만족도 연구-개인적, 환경적, 상호작용 요인-.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도경숙(2004). 부모-자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대인지능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숙(1984).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내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호(2001). 부부의 자아 존중감, 내적통제성 및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화(2004). 부부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초(2005). 샤틀어의 성장 의사소통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태영(2005). 한국인의 기혼남녀들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과. 상담학연구 Vol. 6(2) 601-619
- 송상홍(2004). 부모의 의사소통유형과 친밀감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시내(1999). 결혼생활만족과 부부의사소통에 관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란(1989). Marriage Encounter와 부부간의 의사소통 및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석사 학위논문
- 송정아(2005). 이마고 부부치료이론의 타당성 연구-배우자 선택과 이마고

- 형성 이론을 중심으로-. 천안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연구
Vol. 6(1) 261-274
- 오제은(2005).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학지사
- 오제은(2005). 커플관계 치료에 있어서 ‘어린시절의 상처’ 치료의 중요성.
이마고 커플관계치료와 내면아이치료 모델을 중심으로, 천안대학교
상담대학원, 상담학연구 Vol. 6(3) 1055-1070
- 이선정(2000). 기혼여성의 배우자 선택요인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선희(2000). 부부의 MBTI 성격유형의 유사성과 의사소통 및 결혼
만족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신혜(2005). Satir 의사소통이론의 한국가족치료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자(2004). 선택이론으로 본 부부의 욕구강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2002). 기혼여성의 우울과 배우자 지지.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 8(4). 482~493
- 이종선(2001). 부부 개인특성, 의사소통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희(2002). 스트레스 통제감 및 대처방식이 결혼생활 적응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문선(2005). 기혼여성의 애착유형과 우울 및 부부문제와의 관계. 경북
대학교 심리학과. 상담학 연구 Vol. 6(3). 1011-1024
- 장은경(2001).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춘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 부부의 지지 및 갈등
해결 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귀연·구순주·박경란(1998). 부부간 의사소통 유형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가족복지연구 Vol. 2. 1~23

- 전명진(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주(2005). 이혼전 상담의 임상적 쟁점에 대한 고찰.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상담학 연구 Vol. 6(1). 245-260
- 정문자(2003). 샤틀어 경험적 가족치료. 학지사
- 정미영(2002). 부부 의사소통 기술훈련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V.Satir의 의사소통 가족치료이론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윤영(1998). 부부대화법(Couple Communication)프로그램이 의사소통
기술 활용정도, 자아존중감, 갈등해결방법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
는 효과. 서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2002). 자아분화와 부부 적응과의 관계, 대구가톨릭 대학교 사회복지
학부 상담학 연구 Vol. 3(1). 171-184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지혜정(2002).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심리·사회적요인의 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배근(1995). 커뮤니케이션학개론(상,하). 세영사
- 채규만(2002). 핵심대화(기술과 과정). 하우
- 채규만, 최규련, 송정아, 홍숙자 공저(2002). [부부대화법1] 부부가 함께
말하기와 듣기.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최규련(2005). 이혼의 심리사회적 원인과 상담적 함의. 수원대학교 아동
가족 복지학과 상담학연구 Vol. 6(3). 1025-1040
- 최영실(2005). 융의 심리유형론의 관점에서 본 샤틀어 의사소통 유형
이론의 재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숙(1996).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부부의사소통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통계청(2006). 2005년 혼인 이혼 통계결과 보도자료
 홍숙선(2001). 기혼여성의 결혼만족 : 관계 및 자율 지향성과 성 만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MBC 문화방송(2004). 2004 MBC 가족백서. (주)문화방송

- Bienvene M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p. 19. pp. 26-31
- Burr, W.R., G.K. Leigh, J. Constantin.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W.R. Burr, R. Hill, F.I. Nye, and I.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N.Y. : Free Press, 1979 : 42-111
- Charles W. Morris(1964). *Signs, Language and Behavior* (New York : Prentice-Hall, 1964)
- Clinebel, H. J.(1975). *Groth Counseling for Marriage Enrichment*, Philadelphia : Fortress Press.
- Colin Cherry, *On Human communic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1), p. 219
- Cooley, Charles Horton(1956). *Social Organization*, Glenco, Illinois : Free Press.
- Duvall, Evelyn 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rd ed., New York : Lippincott Co.
- Edward Sapir(1935). "Communication," in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N(New York: Mcmillan Co,1935), p. 76.
- Freimuth, V. S.(1976). The Effects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on Communication Effectivenes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 pp.
- Gottman, J. M. & Siver, N.(1999). *The seven principles for marking marriage*

- work*, New York: Three Rivers Press.
- Gross, I.H, E.W. Crandall, and M.N. Knall(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Prentice Hall Inc.
- Hawkins, J. A, Weisberg, C. & Ray, D. W.(1977). *Marital Communication style and social cla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pp. 479-490.
- Hawkins, J. S, & Ray, D. W.(1980). Spouse Difference in Communicatio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2, No.#.
- Jacobson, N. & Margolin, G. (1979). *Marital Therapy*. New York : Brunner/Mazel.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Burr, W., Hill, R., Nye, I., & Reiss, I.(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 Free Press.
- Mace, D. & V, Mace. (1976). Marriage Enrichment : A Preventive Group Approach for Couples. In D. H. Olson(ED) *Treating Relationship*. Lake Mille, Iowa: Graphic Publishing Company, 321-338.
- Miller, S, Miller, P., Nunnally, E.W. & Wackman, D.B(1992). Couple Communication instructor manu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s, Inc.
- Miller, S, Miller, P., Nunnally, E.W. & Wackman, D.B(1994). Couple Communicational : Talking and listening togethe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rograms, Inc.
- Minuchin, Salvador(1975).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 Navran, L. (1967).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ily Process*, vol. 6, pp. 173-184.

- Norton, R. W. (1978). Foundation of communicator style construct,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4, 1.
- Richard Udry (1966). *The Social Context of Marriage*. pp. 274-275.
- Satir, V.(1964).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 : *Science and Behavior Book*.
- Satir, V.(1972). *People Making*, Palo Alto, CA : Science and Behavior, Inc.
- Snyder, D. K.(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813-823
- Spanier, G. B.(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 38, pp. 15-28
- Theodore M. Newcomb, *Social Psychology* (New York : Dryden, 1950)
- Ward, R. A. (1993). "Marital happiness and household equity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427-434
- Warren Weaver, "Recent Contributions to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in Claude E. Shannon and Warren Weaver,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Illinois, 1949), p. 3.
- Weiss, R. L. (1980). Strategic behavioral marital therapy : Toward a model for assessment and intervention. In J. P. Vincent (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 An annual comilation of research*(Vol. 1, pp. 229-271). Greenwich, CT : JAI
- Wibur Schramm, *Communication in Modern Society*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48), p. 24
- Wright, Charles(1975). *Mass Communication*, New York : Random House.

<Abstract>

The Influence that the Communicative style Affects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²⁾

Kang, Cha-Sun,

Counselling Psychology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Hur, Chul-soo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is research aims at clarifying what are the communicative styles that will exert an influence upon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married couples living in the Jeju community, by means of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on the communicative style and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the married couples. To accomplish this aim,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provided.

2) This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1. What relations are there between the communicative style and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2. Is there any difference of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3. What is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birth place?
4. Is there any difference between two communication style and the marital satisfaction?
5. What effect does two communication style have on the level?

The research population was selected from the common married couples living in the Jeju community, and questioned with the self-report questionnaires by distributing those to the whole Jeju community of Jeju City, North Jeju County, Soguiipo City, by directly distributing them to South Jeju County, Agricultural cooperative banks, Educational institutions, Jeju Province Government, and the Jugong apartment belt in the Yeedo district area by visiting, and then were collected when the questions were responded.

The questionnaires of communicative style and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applied to this research were compiled with the use of the Communicative Style Test(Chae Gyu-man, 1996) introduced by Chae Gyu-man, which comprises 76 questions in all, with 53 items of the proper Talking Style, 10 items of the improper Talking Style, and 13 items of the improper problem-solving Talking Style between husband and wife.

The Korean Marital Satisfaction Level Test (K-MSI), known as the

Multi-dimensional Measuring Set to check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was arranged into 160 items in all, modified, rearranged and standardized by Guon Jung-hye and Chae Gyu-man (1998) with the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developed by Snyder(1979) to be practically suitable to the real situation in the Korean community, and the collected, processed and analyzed data were verified of Correlate, T-Test, ANOVA, Regression on the level of significant $p<001, p<01, p<5$ by the use of SPSS 10.0 WIN.

Followings are the research results obtained by the above process.

First, in the couple's communication and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a functional communicative style shows a higher rate of negative correlation, whereas a counter-functional and so problem-solving communicative style show a higher rate of positive correlation.

Second,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husband and wife shows a bigger difference in the aggressive activities for the husband and a bigger difference in the Conventionalization for the wife.

Third,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classified by the birthplace (Among whose who came from the main land provinces) has a bigger difference in the Sexual Dissatisfaction, Time Together, and Affective Communication.

Fourth, the general Talk tendency and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show a bigger difference in the Global Distress, Affective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Sexual dissatisfaction, Time Together and that with the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when the couple doesn't enjoy their Talk.

Fifth, in the influence that the communicative style exerts on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the Global Distress by Talking, problem-solving, Spite Talking, Fight-Capitulate, Float dialogue Style, the problem of Affective Communication by Talking, Listening, Fight Talking, Spite Talking, Compromising, the Sexual dissatisfaction by problem-solving, Float, Persuade dialogue Style, the Time Together by Talking, Problem-solving, Control talking, Avoid, and Compromising dialogue Style, the communication for the Problem-Solving by Talking, Listening, Fight Talking, Spite Talking, Fight-Capitulating, Floating and Persuading dialogue Style, the Disagreement about Finances by Talking, Fight Talking and Spite Talking, dialogue Style, the Aggressive actions by Spite Talking and Fight-Capitulating dialogue Style, the Conflict with In-Laws by Listening, controlling, Spite Talking, Floating, and Persuading dialogue Style, the Family History of Distress by problem-solving, Spite Talking dialogue Style, the Conflict over Child Rearing by Talking, problem-solving, controlling, Fight Talking, and Compromising dialogue Style, the 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by the problem-solving, and Fight Talking dialogue Style, the Conventionalization by Talking, Listening, Fight Talking, Spite Talking and compromising dialogue Style, and the Role Orientation by the problem-solving dialogue Style resp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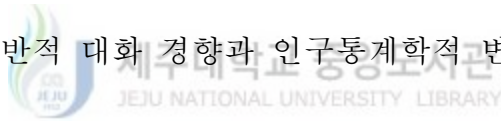
Putting all the research results together, it is clear that the communicative style will exert an influence upon the level of marital satisfaction and that such functional communicative style as speaking, hearing, problem-solving in the lower primary factors will enhance the feeling of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at the present day when the rate of divorce and the level of marital dissatisfaction among the married couples are on the rising trend, a proper functional communicative education will be helpful to foster the sense of self-care,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ing the others and then to harmonize their human-relationship.

In this sense, this research will suggest a necessity of functional communicative education to be applied to all the educational spots (At all the levels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college or university, and again to the public).

부 록 목 차

<부록 1> 결혼만족도(K-MSI) 하위 요인척도	72
<부록 2> 의사소통 질문지	76
<부록 3> 결혼만족도 검사(K-MSI)	78
<부록 4> 일반적 대화 경향과 인구통계학적 변인	81
감사의 글	84



<부록1>

1. 결혼만족도(K-MSI) 하위 요인 척도

(1) 전반적 불만족 척도(Global Distress)

결혼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이나 분위기를 말해 주는 지표로써 이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인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족, 다른 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느끼는 부부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결혼생활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2)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Affective Communication)

배우자에게 느끼는 애정이나 정서적인 친밀성의 결여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감정표현이나 정서적 지지의 결여, 감정적인 이해와 상호 개방의 결여를 재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3)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 척도(Problem-Solving Communication)

배우자와의 사소한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논을 회피하는 것, 구체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으로 문제해결 의사소통의 비효율성과 부부관계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불일치를 측정한다.

(4) 공격행동척도(Aggression)

배우자의 언어적 위협과 신체적 공격행동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이 문항의 내용은 화났을 때 소리 지르기, 광하고 문 닫기, 물건을 집어 던지기 등의 위협적 행동이 포함되어 있고, 가볍게 밀치는 행동에서부터 신체적인 상처를 입히는 행동에 이르는 다양한 신체적인 공격행동을 평가한다.

(5) 공유시간갈등척도(Time Together)

배우자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정도와 동료애의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공유하는 여가활동의 부족과 공통 관심사의 부족 정도를 측정한다.

(6) 경제적 갈등 척도(Disagreement about Finances)

가계관리와 관련된 부부간의 불일치정도를 평가하는 척도로써 경제적 문제에 대한 걱정, 배우자의 재정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부족, 경제적 문제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을 포함한다.

(7) 성적 불만족 척도(Sexual Dissatisfaction)

성관계나 그와 관련된 성적 활동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족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성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족, 성행위와 관련된 불편한 기분, 성행위에 대한 배우자의 관심과 열정부족에 대한 불만족 등을 포함한다.

(8) 비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Role Orientation)

가사활동,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분담, 가족내의 의사결정에서의 지위와 영향력의 공평성, 직업에 대한 기회와 중요성에 대한 형평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부부관계와 부모로서의 역할에서의 성역할에 대한 응답자의 전통적 혹은 근대적인 태도를 측정한다.

(9) 원가족 문제 척도(Family History of Distress)

자신의 원가족내의 갈등이나 문제, 불행한 어린시절, 불행한 부모의 결혼생활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이나 부모의 결혼생활에 대한 지각이 현재 부부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10)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Conflict with In-Laws)

상대배우자가 응답자의 부모에게 비현실적으로 잘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 배우자 가족으로 인한 부부갈등,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대처 양식을 측정한다.

(11) 자녀 불만족 척도(Dissatisfaction with Children)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질을 평가하고 자녀의 정서상태 및 행동에 대한 걱정을 평가하는 척도로써 자녀의 적응에 관한 걱정, 자녀 양육에 대한 실망감,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관계의 부족, 자녀와의 잦은 갈등 등 네 가지 측면을 측정하였다.

(12) 자녀 양육 갈등 척도(Conflict over Child Rearing)

자녀양육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감 부족, 자녀 양육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 훈육방식에 대한 배우자와의 불일치를 측정하는 척도로써 부부관계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갈등 정도를 측정한다.

(13) 관습적 반응 척도(Conventionalization)

응답자가 자신의 부부관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제시하고 왜곡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써, 비 일관적 반응 척도와 함께 응답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 척도의 문항들은 결혼생활에서 사소하고 평범한 문제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지나치게 자신의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문항의 내용은 배우자에 대한 절대적 만족, 결혼생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에 대한 절대적 만족, 완벽한 조화와 이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4) 비일관적 반응척도(Inconsistency : INC)

9개의 하위척도에서 유사한 응답이 기대되는 20쌍의 문항을 뽑아 이 척도의 반응 경향성을 봄으로써 응답자가 전체 검사에 얼마나 부주의하게 반응하였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질문지의 사전검토 과정에서만 사용되었다.

<부록 2>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 부부들의 의사소통 양식과 결혼 만족도와
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입니다.

본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이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이오니
질문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자료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상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 문항이라도 기록이 빠지면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없으
므로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해주시는 자료가 바르게 쓰일 수 있도
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5년 6월

제주대학교 교육 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강 차 선 드림

1. 의사소통 질문지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항들입니다.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배우자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말을 함부로 한다					
2 배우자의 이야기를 조금만 듣고 곧바로 말하기 시작한다.					
3 우리 부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4 다른 부부에 비해 우리 부부는 의사소통이 더 잘 된다					
5 배우자와 대화할 때 그(녀)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다					
6 정말로 속상한 것은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7 배우자에게 명확하고 솔직한 메시지를 보낸다					
8 배우자는 내가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9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배우자의 탓으로 돌린다					
10 솔직한 감정을 배우자에게 표현하기가 힘들다					
11 배우자가 자신의 얘기를 충분히 하도록 '좀 더 얘기하라'고 격려한다					
12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과거보다는 현재와 앞으로의 해결책에 초점을 두어 얘기한다					
13 배우자에 대해 관찰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준다					
14 배우자가 얘기하는 동안, 잠시 멈추었을 때 이야기한 것에 관해 충고나 질문을 해서 대화의 화제를 바꾸곤 한다					
15 배우자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					
16 배우자에게 나의 입장이나 생각을 솔직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한다					
17 배우자가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인정해준다					
18 문제해결을 할 때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19 배우자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반대의견을 말할 수 있다					
20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한다					
21 문제해결시 문제에 관한 그(녀)의 생각, 감정, 그리고 이제까지 문제해결을 위해 해왔던 방식을 잘 파악하려 노력한다					
22 우리 부부는 반대의견을 이야기할 때 서로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23 배우자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말한 내용을 내가 이해한대로 요약해준다					
24 우리 부부는 문제해결을 위해 여러 대안을 함께 생각해 본다					
25 배우자에게 나의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느낌이 든다					
26 우리가 시도했던 문제해결이 성공적이었는지 함께 검토해본다					
27 우리 부부는 서로의 말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8 배우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					
29 나는 우리 부부사이의 차이점은 결코 극복될 수 없다고 생각 한다					
30 배우자와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미리 생각을 정리하여 이야기 한다					
31 나는 배우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TV나 신문을 계속 보는 경향이 있다					
32 문제에 대한 나의 책임을 인정한다					
33 나는 두서없이 말하곤 한다					
34 배우자가 얘기할 때 그(녀)의 눈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여 준다					

당신이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표 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다	그렇 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35 문제를 의논할 때 나는 그 문제와 관련된 과거 일을 자주 언급 한다					
36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얘기한다					
37 배우자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38 가능한 한 그 문제에 대한 배우자의 입장을 이해한다					
39 객관적인 사실을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구분하여 잘 표현한다					
40 배우자와 이야기할 때 그(녀)의 입장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로 표현해준다					
41 배우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동의한다					
42 나는 대화할 때 배우자에게 나의 생각·판단·의견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준다					
43 배우자의 생각에 대해 비판적이고 평가적인 얘기를 한다					
44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미리 제안한다					
45 배우자가 화낼까봐 두려워 반대의견을 이야기하지 못한다					
46 배우자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난 후에야 질문을 한다					
47 배우자와의 문제 해결을 시도할 때 나, 배우자, 우리 모두의 이익을 고려한다					
48 배우자와 나의 기쁨, 슬픔, 애정, 분노의 감정을 같이 나눈다					
49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지 배우자와 함께 의논한다.					
50 배우자에게 나의 소망이나 바람을 분명하게 표현한다					
51 성공적으로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한다					
52 배우자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어렵다					
53 나만의 바람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우리 부부관계를 위한 바람도 생각한다					

당신은 배우자와 어떻게 대화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문항에 모두 ○표 하세요.

- 1 배우자에게 지시하거나 설교하듯이 이야기 한다. ()
- 2 나는 배우자와 대화할 때 자주 다투는 편이다. ()
- 3 대화시에 감정적으로 배우자를 비난하곤 한다. ()
- 4 배우자에게 잔소리식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
- 5 배우자에게 명령조로 이야기 한다. ()
- 6 배우자는 내가 빈정대며 얘기한다고 불평한다. ()
- 7 배우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곤 한다. ()
- 8 배우자에게 대체로 충고하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
- 9 대화시에 배우자에게 상처 줄만한 말을 내뱉곤 한다. ()
- 10 배우자에게 분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다. ()

부부간에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음 중 어떤식으로
해결하십니까? 해당하는 문항에 모두 ○표 하세요.

- 1 배우자와 문제해결을 위해 이야기하다가 자주 다툰다. ()
- 2 나는 강요나 명령을 해서라도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 3 문제가 생기면 잡담으로 얼버무리 그 문제를 피해가거나 주제를 바꾸려한다. ()
- 4 서로 잘못하고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
- 5 문제를 해결할 때 서로의 손익을 계산하여 타협점을 찾는다. ()
- 6 나와 의견이 다르면 언짢은 기색을 보이며 문제점에 대해 의논하기를 회피한다. ()
- 7 협동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문제를 해결한다. ()
- 8 문제해결시 배우자의 결정에 저주는 편이다. ()
- 9 걱정스러워하고 불안해하거나 식구들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근본문제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 ()
- 10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냥 미해결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
- 11 문제해결시 배우자가 나의 해결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한다. ()
- 12 문제들에 대해서 배우자와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 ()
- 13 문제에 관해 서로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는다. ()

2. 결혼만족도 검사(K-MSI)문항들입니다.

다음 문항에서 당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그렇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아니다'에 ○표 해 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1 나는 우리의 결혼생활이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2 내 배우자는 그때그때 내 기분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3 경제적 문제 때문에 우리의 결혼생활이 어려웠던 적이 전혀 없었다.		
4 남편이 가족을 이끌어야 한다.		
5 우리사이에는 같이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6 우리의 성생활은 매우 만족스럽다.		
7 우리는 같이 이야기할 주제가 많지 않다.		
8 때때로 나는 배우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친구에게 대신 이야기한다.		
9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0 나는 결혼생활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		
11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12 우리는 성(性)에 대해 솔직하게 의논하지 않는다.		
13 내 배우자는 내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잔소리를 한다.		
14 우리는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15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를 속상하게 한다.		
16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17	우리는 논쟁할 때 서로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한다.		
18	내 배우자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점들이 있다.		
19	아이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20	내 배우자는 나를 때린 적이 있다.		
21	결혼에서 평등한 관계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대체로 남편이 가족 일에 대해 더 큰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22	때때로 나는 배우자를 몹시 떠나고 싶었다.		
23	내 어린 시절은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했던 것 같다.		
24	내 배우자는 어려움 없이 비판을 받아들인다.		
25	맞벌이 부부인 경우 아이가 아프다면 남편도 결근을 하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		
26	내 배우자는 내 기분을 완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27	우리는 논쟁할 때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 같다.		
28	내 배우자가 화가 나서 나를 때릴까봐 걱정한 적은 없다.		
29	나는 돈 문제에 관해서 배우자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30	나는 결혼생활에서 충족되지 못한 중요한 욕구들이 있다.		
31	나의 부모님의 결혼생활은 모범적이었다.		
32	나는 배우자와 성관계를 거의 갖지 않는다.		
33	견해 차이가 있을 때, 내 배우자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34	나는 배우자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꽤 만족하고 있다.		
35	나는 우리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한 적이 있다.		
36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만 직장에 다녀야 한다.		
37	우리는 돈 문제로 거의 싸우지 않는다.		
38	내 배우자는 화가 났을 때 물건을 부수거나 던진 적이 있다.		
39	나는 좋아하지만 배우자는 좋아하지 않는 성행위가 있다.		
40	내 배우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서 내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41	내 결혼은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42	우리 결혼생활에는 심각한 어려움들이 있다.		
43	내 배우자는 나보다도 자신의 부모님이나 집안 일에 더 신경을 쓴다.		
63	나는 내 배우자에게 항상 사랑과 애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64	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성관계를 원한다.		
65	내 배우자는 화가 나면 때때로 나에게 고향을 치거나 소리를 지른다.		
66	내 배우자는 가정경제를 잘 운영한다.		
67	우리는 지금보다 예전에 함께 했던 시간들이 더 즐거웠던 것 같다.		
68	내 배우자는 내가 바라던 모든 자질을 가지고 있다.		
69	나의 가정은 행복했다.		
70	내 배우자는 내 성적 만족감에 대해 배려하지 않을 때가 있다.		
71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72	내 배우자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73	아내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주부의 역할이어야 한다.		
74	내 배우자는 아무리 화가 나도 나를 밀치거나 떠살을 잡은 적은 없다.		
75	배우자와의 사소한 의견차이가 종종 큰 논쟁으로 발전한다.		
76	우리는 성관계 횟수에 대해 대체로 동의한다.		
77	내 배우자는 나와 배우자 집안과의 갈등이 있을 때 자기 집안 편을 더 많이 든다.		
78	만일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79	내 배우자가 때때로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다.		
80	나는 때때로 내 결혼에 대해서 꽤 낙담하게 된다.		

81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도 걸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낼 때도 있다.	
82	우리는 취미와 여가생활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83	내 배우자는 내 몸에 멍든 자국이나 상처를 남긴 적이 있다.	
84	내 배우자는 자기 부모님께 지나치게 잘하기를 바란다.	
85	때때로 나는 배우자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86	나의 부모님은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다.	
87	우리는 논쟁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88	나는 성생활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89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부보다 더 행복하다.	
90	예산에 맞춰 가게를 꾸려가다 보면 필요이상으로 배우자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91	나는 매우 슬픈 감정도 배우자에게 거리낌없이 표현할 수 있다.	
92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내 성격의 어떤 면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93	내 배우자는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다.	
94	내 배우자는 나와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95	내 배우자는 기분이 우울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구한다.	
96	내 배우자는 종종 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97	나는 외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98	배우자가 나와 취미생활을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	
99	나의 부모님은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았다.	
100	가족 경제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	
101	내 배우자는 내 몸에 심한 상처를 입힌 적이 있다.	
102	나는 결혼생활에서 거의 불행함을 모르고 지내왔다.	
103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를 비참하게 느끼게 한다.	
104	내 생각에 우리 결혼은 성공적이다.	
105	우리는 가계의 수입을 어떻게 쓸 지에 대해서 함께 결정한다.	
106	내 배우자는 나에게 화가 나더라도 내 의견을 존중한다.	
107	나는 배우자와 어떤 일을 함께 하는데 매일 최소한 한시간은 보낸다.	
108	내 결혼생활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훨씬 많다.	
109	우리의 논쟁은 대부분 우울하게 끝나고 만다.	
110	나는 배우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111	나는 가끔 성생활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다.	
112	아내의 직업과 남편의 직업은 똑같이 중요하다.	
113	내 배우자는 자기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내가 들어주기를 원한다.	
114	배우자와 나는 별거하거나 이혼할 뻔한 적이 없다.	
115	우리의 논쟁은 자주 둘 중 한 명이 감정을 상하거나 우는 것으로 끝난다.	
116	내 배우자는 때때로 성에 대한 열정이 거의 없는 것 같다.	
117	내 배우자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	
118	내 배우자는 나와 의논하지 않고 많은 물건을 구입한다.	
119	나는 배우자 가족을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문제로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120	우리 결혼생활이 내가 아는 사람들의 결혼생활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121	내가 최선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한 것인지 여러번 생각해 보았다.	
122	우리는 의견차이가 있을 때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곤 한다.	
123	어머니들이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보육원과 육아원이 생겨야 한다.	
124	내 배우자와 나는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한다.	
125	우리의 수입이 좀 더 많아진다면, 우리 결혼생활의 문제는 더 줄어들 것이다.	
126	나는 배우자가 성관계 중에 좀 더 부드럽게 대해 주었으면 한다.	

127 내 배우자는 자신의 가족이 나에게 악담이나 험담을 해도 가만히 있다.		
128 결혼 전에 빨리 집을 떠나 독립하기를 원했다.		
129 내 배우자는 너무 쉽게 감정이 상한다.		
130 남편의 직업에 따라 거주지를 정해야 한다.		
131 나는 자주 배우자에게 함께 부부상담을 받아보자고 권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32 내 배우자는 때때로 나에게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		
133 내 배우자는 나와 배우자 가족간의 갈등을 잘 이해하고 도와준다.		
135 나의 부모님은 서로 사랑했다.		
136 빨래, 청소, 육아와 같은 일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137 나는 내 결혼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낀다.		
138 우리는 결혼생활에서 사랑과 애정을 많이 표현한다.		
139 내 결혼은 매우 만족스럽다.		
※아래의 문항은 “자녀가 있으신 분”만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음 문항에서 당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그렇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아니다'에 ○표 해주십시오.	그렇다	아니다
140 우리는 아이들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지 언제나 의견이 일치한다.		
141 우리의 관계는 종종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악화된다.		
142 우리는 아이들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143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할 화제가 많지 않다.		
144 내 배우자는 아이를 돌보는데 동등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		
145 아이를 갖는 것이 내가 바랐던 것만큼 만족감을 주지는 않았다.		
146 내 배우자는 아이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147 우리 아이들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만큼 즐겁고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		
148 우리는 아이들 문제로 거의 싸우지 않는다.		
149 우리 아이들은 내 감정에 대해 무관심하다.		
150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일상에 대해 내게 와서 자주 이야기한다.		
151 우리는 아이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함께 결정한다.		
152 나는 자주 아이들과 집안 일을 함께 한다.		
153 아이들 때문에 우리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긴 적은 한번도 없다.		
154 우리 아이들은 집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성실하다.		
155 나는 자주 아이들과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56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157 내 배우자는 아이들에게 충분한 애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158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은 나와 거의 비슷하다.		
159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160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아이들을 벌주어야 할 지에 대해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한다.		

3. 일반적인 대화경향성과 인구통계학적변인

다음문항에서 당신부부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표 해주십시오.

- 6 당신의 결혼 형태는?
 ①연애혼 ②증매혼 ③절충혼(연애반증매반) 기타 _____
- 7 결혼 전 교제 기간은? _____년 _____개월
- 8 당신의 결혼 지속 연수는? _____년 _____개월
- 9 자녀수는? _____남 _____녀 (총 _____명)
- 10 당신의 결혼전 고향은?
 ①제주 ②타도 ③기타 _____
- 11 당신 부모님의 결혼생활은 어떠하십니까?
 ① 매우 행복 했었다 ② 비교적 행복 했었다 ③ 보통이었다
 ④ 비교적 불행 했었다 ⑤ 매우불행 했었다
- 12 당신 부모님은 당신과 배우자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찬성하셨다 ② 찬성하셨다 ③ 보통이었다
 ④ 반대하셨다 ⑤ 매우 반대 하셨다
- 13 당신의 주거지는?
 ① 제주도 ②서귀포시 ③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⑤그외지역 _____
- 15 당신의 가구형태는?
 ① 부부 ② 부부와자녀 ③ 시가(본가)와동거 ④ 처가(친정)와동거
 ⑤ 옆집(안채, 밖앗채) ⑥ 기타 _____
- 16 당신의 종교는?
 ① 없다 ② 기독교 ③ 카톨릭 ④ 불교 ⑤ 유교 ⑥ 기타 _____

감 사 의 글

배움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여주신 나의 가족과 지인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연구에 동기를 주신 채규만 교수님, 논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도와 충고로 이끌어주신 허철수 교수님,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박 태수 교수님, 항상 웃음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신 김성봉 교수님, 나의 모자란 학문을 일깨워 주신 박정환 교수님, 그리고 논문들의 자료를 망설임 없이 보내주신 송시내 선생님과 여러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온 대학원 동기들, 그리고 오랜 친구들, 특히 이경희 국장님과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하여 그 외 여러 직원님들, 설문을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1366 직원들과 양문정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논문을 검토하고 격려해준 나의 친구 성대림, 공부하는 엄마를 위해 많이 참아준 아들 명준과 대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망설이는 저에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마다 도움을 준 수병, 진희, 애자언니, 미숙, 동생 신욱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박 루시아 수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더 많지만 무엇을 하며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기에 나의 삶에 충실하며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2006. 8월 강차선